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발행일 및 신용등급서 확인 필요. *금융정보업 및 보호상품 아닌 *자산관리(펀드)·*금융연계 *신용등급(한국채)에 따른 신용등급(부) 또는 만원 미만 기본 및 투자자 추가 *당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환급률 가능 *AAA/A+ A/BBB 지 *0.0~0.5%로 투자목적에 따른 구분

제327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수뇌부 재정비한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전략회의 2

현대차·기아, 美판매 150만대 고지 넘었다 4

코스피(4일)	코스닥
▲ 2514.95 (+0.94P)	▲ 828.52 (+1.28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304.00 (-1.80원)	▼ 3.531% (-0.0569P)

기재 최상목·국토 박상우 尹정부, 6개 부처 개각

윤곽 드러낸 '2기 내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6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차기 수장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지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계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며 "특히 본인이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

해수 강도형·농림 송미령 보훈 강정애·중기 오영주

립유공자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송미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도농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강도형 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젊은 1970년생"이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20개월 만에 4만 달러(약 5200만 원)를 넘어선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빙셀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년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 예감에 하반기 들어 상승해왔다.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전망되며 4만 달러 저항선을 뚫었다. ▶ 관련기사 12면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상자산 흑반기' 18개월... 더 굳건해진 대형거래소 아성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도, 글로벌 상위 거래소는 굳건했다. 바이낸스는 연이은 법률 리스크에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가상자산 분석기업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소별 점유율은 △바이낸스 43.9% △업비트 11.5% △HTX 7.8% △코인베이스 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70%까지 치솟았던 바이낸스 거래 점유율이 규제 여파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80%대 점유율로 시장을 고착화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현상은 이용자들이 시장 침체로

사용자, 안전성 높은 거래소로 이탈 편의성·플랫폼 '록인 효과'도 한몫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심화

거래량이 적고 안전성이 떨어질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더 안정적인 거래소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TX 파산 및 하루 인베스트·텔리오 사태 등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크고 안전한 거래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주 요인은 복합적이다. 업비트는 2017년 출시할 때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을 도입했다. 편리한 사용자 경험·사용자 환경(UI·UX)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아래, 하위거래소도 일정 점유율

을 확보했지만, 업비트가 낮은 거래 수수료(0.05%)를 바탕으로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원화계좌 계약을 맺으면서 빠르게 신규 고객을 늘려나갔다. 당시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이용자들의 업비트 집중이 더 강해졌다.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이용자들은 더 큰 거래소로 몰렸다. 올해 하반기부터 위기감을 느낀 빗썸을 필두로 코빗·고팍스는 거래 수수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도 플랫폼의 자물쇠(Lock-in) 효과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KYC(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용자로서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시은 기자 zion0304@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우주 여행을 떠나고, 로봇 친구를 사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는 미래

미래는 지금, KDB산업은행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 킬러문항에… 대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모르겠다”

한경협, 500대기업 설문조사

고금리·고환율과 증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6~2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31곳)의 55.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7%였고,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3%였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이 38.0%에서 49.7%로 증가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31.6%),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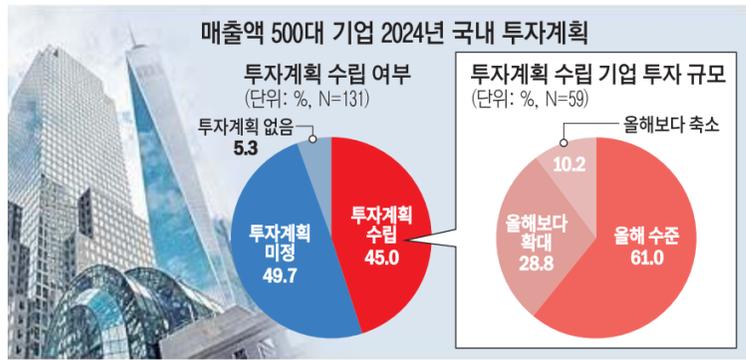
대내외 경제전망 불확실성 지속
인축 장기화·정책지원 여력 약화
미정 기업 38.0%→49.7% 증가
“금리 인하·법인세 감세 등 필요”

애로(14.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목표물가수준(2.0%)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 지속(33.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환율·고물가 지속(24.2%) △글로벌 경기 둔화(21.6%) △민간 부채 위험(9.4%)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3곳 중 1곳(32.8%)이 내년 하반기로 응답했다.



2025년 19.8%(상반기 15.3%+하반기 4.5%), 2024년 상반기 12.2%가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한 2.0%로 전망했다. 장기간 통화 긴축의 여파로 더욱 심화된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 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신속한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 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금융 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면 2.0% 수준의 낮은 성장률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2.0%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로 소비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 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설 투자 관련 지원이 크게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현재 기업들이 투자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 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0%) △R&D·시설 투자 지원 부족(13.7%)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 규제 완화(18.3%) △금융 지원 확대(12.7%) 등을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투자 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경쟁제품 몰아내고 시장 장악하는 상품〉

수뇌부 재정비한 삼성전자… 내주 ‘킬러앱 찾기’ 총집결

글로벌전략회의 개최

인사·조직 개편 조기 마무리 이어
한중희·경계현, 부문별 회의 주관
반도체 초격차·신성장동력 논의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미·중 간 주도권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가속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영 전략 수립

이 여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인사에 이어 이날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까지 마무리해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 업황을 점검하고, 신성장 동력 방안과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이 먼저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하고, 이후 반도체 등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회의가 열리게 된다. 한중희 DX부문장(부

회장)과 경계현 DS부문장(사장)이 부문별로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통상 12월 초 인사 후, 같은 달 중순께 열렸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빨라진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예년보다 조기 인사가 단행된 만큼, 회의 시점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 경기 침체, 미·중 무역 전쟁 등 위기의 진원지도 다양하다.

연 50조 원이 훌쩍 넘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7조 원대로 급락하며 위기감이 더 커졌다. 황금알을 낳던 반도체 사업 역시 공급 과잉 속에 올해 3분기 누적 1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스마트폰과 TV 사업도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S 부문은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초격차 전략을 논의한다. 경쟁사보다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경쟁력 확대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DX 부문은 TV·가전·스마트폰 등 제품 수요 둔화에 따른 프리미엄 전략과 북미·유럽·중남미 등 주요 시장 공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기 출시를 결정한 첫 AI폰 갤럭시S24 판매 확대 및 폴더블폰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송영록 기자 syr@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업비트〉

1위 코인거래소가 시장 80% 독식... “한국만 유일한 구조”

각국 1위 거래소 점유율 분석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시장구조는 한국이 유일했다. 일본·튀르키예·인도네시아 등 가상자산 거래가 많으면서 나라별 국내 거래소의 비중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업비트와 같은 압도적 플레이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국가 통화는 달러와 한국 원화를 제외하고 일본, 영국, 튀르키예,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순이다.

4일 가상자산 분석 기업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비트플라이어(Bitflyer) 37.62% △코인체크(Coincheck) 26.73% △비트뱅크(Bitbank) 13.86% △BTC박스(BTCBOX) 13% △GMO 재팬(GMO Japan) 8.91% 순이다. 일본은 특정 거래소가 두드러지기보다 각 업체가 비교적 고른 점유율 형태를 보인다.

튀르키예는 6월 기준 △파리두(Paridu) 50.45% △BTC투르크(BtcTurk PRO) 36.9% △비트(Bit) 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BTC투르크의 점유율이 절반을 웃돌았지만, 격차가 점차 좁혀지더니 올해 4월 두 거래소 간 점유율이 뒤집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배적인 플레이어 없이 시장 거래소 간 변동이 큰 편이다. 6월 기준 월간 점유율은 △토크크립토(tokocryp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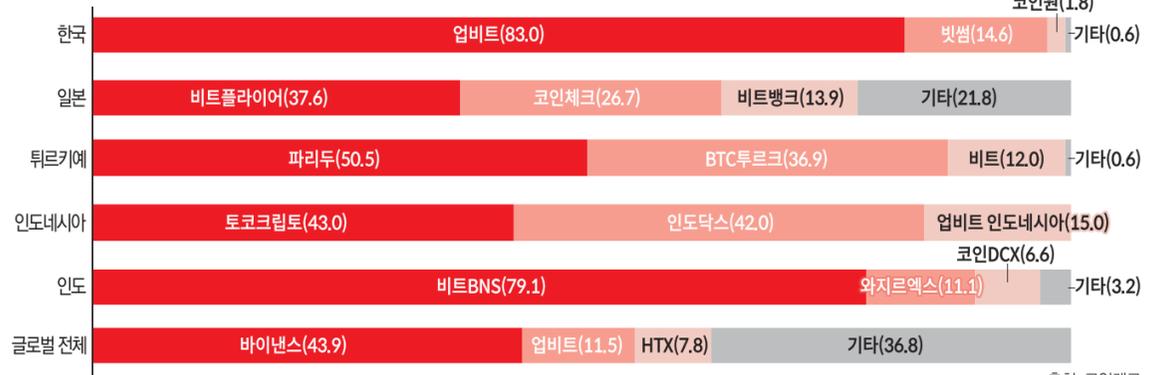
38%·인니 43% 비교적 낮고 소득세율 큰 인도마저 80% 아래 “법인 거래 허용돼야 풀림 해소”

43% △인도닥스(indodax) 42% △업비트 인도네시아(upbit indonesia) 15% 순이다. 올해 3월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월간 점유율 41.1%로 1위를 탈환한 적 있으나 실적을 유지하지 못했다.

다만, 특정 거래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상자산 신흥국이 하나 있다. 바로 인도이다. 인도의 가상자산 점유율은 올해 6월 기준 비트BNS(Bitbns)가 79.1%, 2위 와지르엑스(WazirX) 11.1%로, 1위 거래소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와지르엑스가 인도 내에서 점유율 65.3%로 1위, 비트BNS가 21.6%로 2위였으나 시장 침체와 과세 영향으로 1, 2위가 바뀌었다. 인도는 지난해 4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율 30%,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1%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이후 인도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90%가량 급감했다.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살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장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와지르엑스는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20% 감원하기도 했다.

주요국 1~3위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단위: %) 1위 2위 3위 기타



※ 출처: 코인게코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플레이어의 고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거론된다. 일본과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를 할 수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의예반젤리스트(초이스뮤온오프대표)는 “국내 투자가 일반 투자

자에 한정돼 있다”며 “일반 투자자 영역에서 업비트 이용률이 쏠리는 이유는 유통량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정부 규제 방침에 의해 현재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관 거래가 허용되고, 기관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유통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쏠린 거

래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 참여를 허가해 기관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 질적인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막는 이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시은 기자 zion0304@

“日, 특정 거래소 집중되지 않아”

인터뷰

오다 겐키 JVCEA 회장

“자민당 웹3.0PT(웹3 프로젝트팀)가 2022년에 출범했고, 일본 정부도 웹3.0 산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게 됐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 경제산업성(METI)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전환해 웹3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다 겐키(사진) 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JVCEA) 회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JVCEA는 일본 내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사단법인이다. 오다 회장은 2016년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포인트(BITPOINT)를 설립했으며, 현재 SBI 홀딩스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제로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오다 회장은 일본 웹3.0 산업 생태계의 고른 성장에는 ‘육성’에 방점을 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도 여전히 웹3.0에 회의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올해 정책 기조 변화 이후) 웹3.0 분야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늘어났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다 회장은 “2023년 11월 말 현재 일본의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수는 29개”라면서 “각 기업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



해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들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가상자산·웹3.0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 중이다. 올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크게 늘어 현재 100종 이상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약 30종의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상장 폐지와 거래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오다 회장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중앙화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청의 감독하에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EX(중앙화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웹3.0 시장은 보안과 자금세탁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CEX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다 회장은 한국 시장을 두고 매우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웹3.0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다 회장은 “2024년 여름쯤 관련 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2023년 1~11월 판매 기준>

현대차·기아 '아메리카R 드림'... '150만대 고지' 넘었다

올해 '美 역대 최대 판매' 기록

고급차·RV·친환경차 매출전인 제네시스 13개월 연속 판매증가 레저용, 판매 비중 77.4% 최고 올해 '160만대 기록' 경신할 듯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들어 11월 까지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150만 대 고지를 넘어섰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레저용차(RV),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같은달보다 7.5% 증가한 13만4404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11.4% 늘어난 7만6066대를, 기아는 2.9% 증가한 5만8338대를 판매했다. 양사 모두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합산 판매량은 151만579대다. 11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판매량인 141만4224대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인 2021년 연간 실적(148만9118대)도 넘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선전하는 배경으로는 제네시스와 RV,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꼽힌다.

지난달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년 동월 대비 19.6% 급증한 5987대를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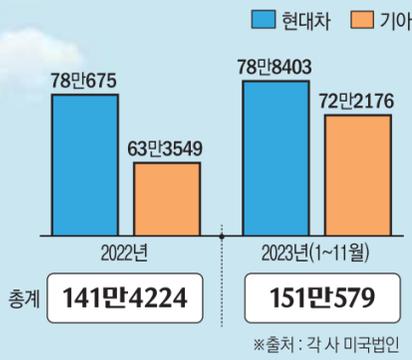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포함한 RV도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RV 모델 합산 판매량은 10만3971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7%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RV 모델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7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투싼(HEV 포함)이 전년 대비 33.1% 늘어난 2만1382대, 팰리세이드가 59.4% 늘어난 9185대, GV80이 38.6% 늘어난 2984대 판매되는 등 주요 SUV 모델이 역대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기아는 카니발이 201.5% 늘어난 3404대로 판매 호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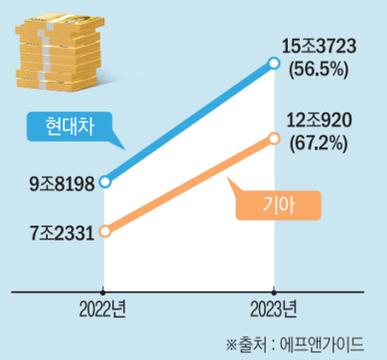
내년 '아이오닉5N·싼타페' 출격 하반기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품질·생산력 업고 판매연승 예고

보였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도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친환경차 판매는 2만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5%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 대비 125.4% 급증한 6918대를 판매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99.2% 늘어난 2372대, 아이오닉6가 1386대, GV60이 152.3% 늘어난 434대 판매됐다. 기아 EV6는 101.2% 늘어난 1290대, 니로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량 (단위: 대) ※ 현대차는 제네시스 포함



현대차·기아 2023년 영업이익 전망 (단위: 억원)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EV는 146.7% 늘어난 1120대 판매되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미국 판매 160만 대 고지도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가 한 달 남은 가운데 160만 대까지 남은 대수는 약 9만 대다. 올해 들어 현대차가 매달 7만여 대, 기아가 6만여 대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60만 대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내년에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만큼 현지 전기차 판매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차 출시도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차

는 내년 현지에서 선보일 아이오닉5N과 신타페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인들은 차를 살 때 JD파워의 신차품질 조사와 내구품질조사 등을 많이 참고하는데 현대차는 최근 품질 지수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해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에서 짓고 있는 공장 에서 생산된 차들은 관세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에서 모두 RV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5조3723억원, 12조92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56.5%, 67.2% 씩 늘어난 규모다.

강문정 기자 kangmj@

반도체·신성장산업, K-수출 회복세 이끈다

한은 '중성장 파급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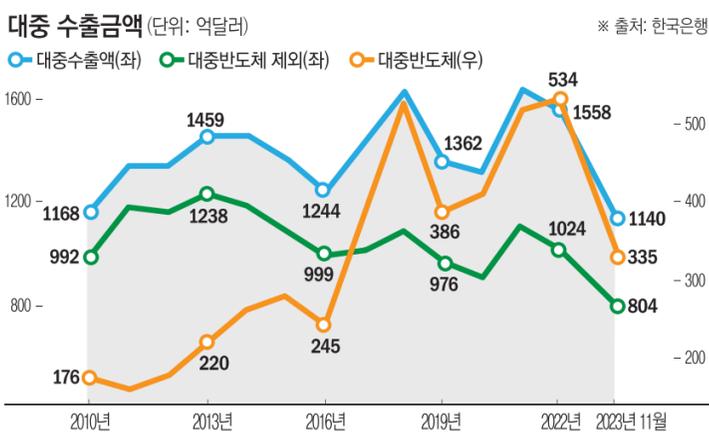
“對中 수출, 예전같은 특수 없어” 아세안 5+인도 신흥시장 주목 중간재→소비재 중심으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편승해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중국을 상대로 수출 특수를 누리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었다. 향후 아세안 5(동남아 주요 5개국)와 인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었다.

4일 한은 조사국이 발간한 '중국 성장구조 변화 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및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수출액(누적 기준)은 804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912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1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월평균 대중 수출액은 11월에 78억 달러로 전월(76억 달러)과 비슷했다. 대중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도체 이외의 수출액은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대중 수출액(누적 기준)은 11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는 15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개발 등



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또 "중국 수출품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상품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화에어로 'K9 자주포' 폴란드 2차 수출 뚫었다

26억달러 규모 'K방산 잭팟' 군수지원·현지부품 생산 협력

K9 자주포(사진)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되며, 또 한 번 'K-방산' 잭팟을 터트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3조 4474억 원(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 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Framework)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했다.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물량(460대) 중 일부인 152대를 금융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차례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지원패키지(Integrated Logistics Support)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화시스템도 1차 수출 계약 물량인 K2 전차 180대에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사격통제시스



템은 사격통제컴퓨터·포수 및 전자장 조준경·전시기·통제판·열상감파장경·레이저고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격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포탑·조준경 제어 △탄도 계산 △자동추적 기능 등을 수행해 화력체계를 통제하고 각종 미사일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통해 전차의 생존성 향상 역할을 한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로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세일즈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거래하던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 방산 교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수출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존 계약 실행을 통해 맺은 폴란드와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고리사채업 근절” 외치지만... 현장선 인력·예산 태부족

악마의 덫, 불법 사금융

금융당국 내년까지 ‘근절’ 선포
시민감시단 등 대응체계 강화
예방 사업 많은데 예산 없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시급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미등록(불법) 대부업 관련 예방 노력에 한창이지만,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대부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



금융당국 및 지자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 출처: 금융위원회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금융당국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신고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서 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제보로 수사기관 통보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운영, 불법대부광고 의심 스펀 문자 사전 제재, 서민권 유사상호 이용한 대부업 등록 지양 협조 요청, 지역별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캠페인
지자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위법행위 지속 점검,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집중 수사·단속
대부협회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 자정활동 독려·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담 및 채무조정 적극 실시

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감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로, 일부가 금감원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에 투입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권에서는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권도 불법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2명 추가됐지만, 업무량에 비해선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문위원은 금융권 퇴직자 출신으로, 서민권 사칭 기관 등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서민권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업무가 늘었는데, 사칭 기관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 등의

인력이 더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예산도 쥐꼬리 수준이다. 올해 서민권의 불법사금융 업무에 배정된 예산은 경기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에 투입된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서민권은 시민감시단(우리동네지킴이)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 전체에 배정된 규모다. 경기도 시민감시단 사업의 운영 규모를 고려해 비교해도 열약하다. 서민권보다 3배 많은 예산으로 감

시단을 운영하는 경기도민감시단활동인원은 서민권보다 약 2배 많다. 통상 예산은 감시단 운영과 성과보상비용 등에 쓰인다.

내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권 ‘우리동네지킴이’ 활동 인원을 올해 100명에서 600명 규모로 대폭키울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범위를 기존 전국 단위로 키우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자체 차원의 시민감시단 운영이 축소·중단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경기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활동은 내년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운영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서민권과 금감원 전국적인 단위의 시민감시단이 운영되다 보니, 사업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업무 유지가 필요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혜영 기자 haha@

미등록 대부업체 쫓아낸다는 당국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 못해”

관리감독권 없는 지자체도 있어
금융당국 “IT검사 투입해 지원”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하고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 따르면 5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사례 중 11건(22%)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대부업

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많다”면서 “지역 검찰청에 권한을 신청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팀이 필요한데 현재 한 명이 업무를 하는 곳도 있어 권한을 받는데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순환근무제인 공무원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IT검사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나갔다”면서 “그 외 별도로 지원하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365일 숙면을 위한 안전한 선택 굿슬립가바 365

예전만큼 쉽게 잠들지 못하고
폭 잔 느낌이 없다면,
하루 2정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세요

바이탈뷰티 굿슬립가바 365는
매일 먹어도 안심입니다.
365일 숙면 라이프!

*굿슬립가바 365는
믿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설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수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중 기능성 주원료 함유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 나이아신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취침 1시간 전 1일 2정 섭취
· 기능성 원료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함유

굿슬립가바 365, '가바'란 무엇인가요?
아모레퍼시픽은 뇌조직의 수면관련물질,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를 연구하여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L-글루탐산발효가바분말은 유산균 발효를 통해 수면과 관련된 가바와 동일한 구조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일 꾸준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원료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결과 총 7가지 지표 [수면 효율/수면 잠복기/총 수면시간/비렘수면 3단계/총 각성시간/입면 후 각성/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실문지의 총점 및 세부항목(수면잠복기 변화량/평소의 수면 효율)]에서 유의적 개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님)

바이탈뷰티
· 제조원 및 유통전문매장 : 아모레퍼시픽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0일분(60정), 3700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시·금융 거친 경제관료... 6년 만에 친정 복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4일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상목 후보자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다. 1963년생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 겸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섭렵했다.

금융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요직 거쳐

尹인수위서 현 정부 경제정책 수립 주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경력이 낙인이 돼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다 2020년 농협대 총장을 맡으며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천재관료'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시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나온다.

관료 사회에서 차기 부총리 후보로 항상 이름을 올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경제 관료로는 매우 드물게 금융 분야와 거시정책 분야에서 각각 요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거친 이력이 이런 세평을 보증한다.

△1963년 서울 출생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0년 만에 정통관료 출신... 국토부 요직 두루 거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건설정책연구원장·LH사장 역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우(사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주택·토지정책에서 손꼽히는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다.



'주택 3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 3년간 LH사장을 역임했다.

LH사장 재직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할

사통합 이후 악화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1961년 부산 출생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용욱 기자 dragon@

제주 출신 해양바이오 전문가 해양과학기술 발전 선도 평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사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1970년생으로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 남녕고, 인하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 석·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해양과학기술 실용화에 앞장서 왔다.

기간제연구원을 거쳐 2006년 해양과학기술원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제주 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책임연구원을 거쳐 올해 1월 31일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해양바이오학회 기획총괄총무이사 및 기획총괄위원장, 해수부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부산항발



전협의회 고문, 한국해양재단 이사, 한국해양학회 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해양바이

오와 미세조류에 관해 연구를 해왔으며 특히 관련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는 데 앞장서 연구소기업도 3개나 만들었다. 그의 연구 성과와 기술은 관련 기업에 이전해 활용되는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 제주 출생 △제주 남녕고, 인하대 해양학과, 제주대 해양생물학 석·박사 △한국해양연구원(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6·25용사 보훈가족... 숙명여대 총장 지낸 여성리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독립운동가 권준의 손자며느리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정애(사진) 후보자는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운동가의 손자며느리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시할아버지인 백인(白仁) 권준(1895~1959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해 활동자금 관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권 선생은 2010년 9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다. 1988년 모교 교수로 부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장을 맡았고,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2012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2016년)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서울태생인 강 후보자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인적자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전문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강 후보자는 인사관리·경영전문가인 데다 대학총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부(部) 승격' 이후 두 번째 보훈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957년 서울 출생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정대한 기자 vishalist@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농식품부 첫 여성장관 지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도농 균형발전과 상생모델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령(사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창덕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를, 동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 농촌지역 개발에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 위원과 2017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공간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된 송 후보자는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2015년 부원장을 역임하고,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균형발전연구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25년 넘게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상생모델을 연구해 온 '농정 박사'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평가받아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다.

△1967년 서울 출생 △서울 창덕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외교관 출신 경제외교 전문가 “中企 신시장 개척 이끌 책임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사진) 전 외교교통상 2차관은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대구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 대학원에선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다.

오 후보자는 외교고시 22회로 1988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후쿠오카대 한민족총영사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정부 긴급구호대 파견을 지휘했다.

작년 3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



고, 같은 해 10월부터 주베트남대사를 맡았다. 올해 7월에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외교고시 출신 여성 외교관이 외교부 차관을 맡은 첫 사례다.

그는 관가에서 정통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가 다년간 외교 요직을 거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64년 경남 마산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22회 △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베트남대사 △외교부 제2차관
김동호 기자 sorahosi@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3년 울산현대가 또 한번
K리그1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새 역사를 써내려갈 그 길을
팬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울산현대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린다. 우리 승리 향해 달린다"

- 울산현대 서포터즈 처용전사 응원가 <끝까지 달린다> 중 -

| 울산현대 K리그1 2년 연속 우승 |



하나1Q 원큐 | K LEAGUE 1 2023

CHAMPIONS
2023



韓·英, 내달 FTA 개선협상 나선다

국민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이달 중 분야별 협상 전략 수립
경제금융대화도 양국 투자 촉진
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도 강화

우리나라와 영국이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추진한다.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보다 공고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민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청정에너지·공급망,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윤 대통령의 국민방문 당시 양국은 안보, 경

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상황을 담은 '다운닝가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全) 영역에 걸쳐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국과의 FTA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 제1차 한·영 FTA 개선협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채널 구축 및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 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에도 나선다.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도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공고화하고, 핵

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을 협의하고, 해상풍력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개최한다.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산업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 협의회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도 체계화한다.

양국은 또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 인적·문화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한·영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1000명→5000명)하고, '한·영 창조산업 포럼'(장관급) 재개 등도 추진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저성장 타파할 '규제혁신토론회' 손경식(오른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종석(세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라인 쇼핑 월 20조 첫 돌파 엔데믹에 여행·교통 28.6% ↑

여행·교통 4개월째 2조 증가
8월, 올들어 역대 최고치 기록
문화·레저·화장품 동반 상승

온라인 쇼핑 주요 증감 품목
(단위: %, 10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10월 온라인 여행·교통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9% 가까이 늘어 4개월 연속 2조 원대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905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1196억 원(11.8%)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전년대비 28.6%(4666억 원) 늘어난 2조99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4개월째 2조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8월(2조2030억 원)에는 올해 들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거래액이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행·교통서비스와 함께 외부활동과 관련이 있는 문화 및 레저서비스(2772억 원)와 화장품(1조636억 원) 거래액도 전년대비 각각 23.1%, 17.1% 늘었다.

온라인쇼핑의 꾸준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음·식료품(15.6%), 이쿠폰서비스(48.9%) 등의 거래도 크게 늘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조20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운영 형태별로는 온라인몰 거래액은 15조17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 늘었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9172억 원으로 16.9%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14조715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1조3378억 원) 늘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화손해보험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분 한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구성원모두를위한맞춤형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디지털 전환점' 맞은 농업, 법적기반 아직 '겨울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비롯해 푸드테크 등 농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 안착과 신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새로운 거래시스템과 시장인만큼 정부와 농산물 유통업계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작 법적인 테두리는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도

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과 개설구역 내 판매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1%의 성장세를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세우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관련법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곳곳 폭설·홍수에 의장국 궤변... 무색해진 유엔기후총회

동아프리카 '엘니뇨 현상' 심화
탄자니아·소말리아 홍수 피해
유럽은 폭설로 전력·교통 마비
"화석연료 폐지 과학적 근거없다"
알 자베르 의장 발언 비난 빚발
유엔 사무총장 "과학은 명확해"



중부 유럽 폭설로 2일(현지시간) 교통이 마비된 독일 뮌헨 거리(왼쪽 사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2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산사태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2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산사태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있다. 수마트라/AP뉴시스·연합뉴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의장국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언으로 논란인 가운데 세계 곳곳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BBC에 따르면 아프리카탄자니아 북부에서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47명이 숨졌고 8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자니아 당국은 "12월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예보된 만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자니아에선 매년 홍수로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아프리카 일대에 엘니뇨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이번 폭우로 이웃 소말리아에서도 1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 르완다에선 5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30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동남아시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날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에서는 홍수 탓에 1명이 숨졌고 11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교회·학교 등 최소 건물 35채가 파손됐고 55가구가 대피소로 옮겼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기상 경보를 발령

하고 4일까지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부 유럽에선 폭설이 내려 여러 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독일 뮌헨에선 공항과 철도 등 교통 시스템이 한때 전면 마비됐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눈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체코에선 주요 고속도로가 눈 때문에 봉쇄됐고 1만5000여 가

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가 동굴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 자베르 의장 발언 직후 참석자들

12월 전 세계 기후재해 현황
(현지시간 기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홍수로 1명 사망, 11명 실종
독일	남부 폭설로 뮌헨 공항, 열차 등 마비
2일 오스트리아	눈사태 경보 발령
스위스	눈사태 경보 발령
체코	폭설에 고속도로 수시간 봉쇄, 1만5000여 가구 정전
3일 탄자니아	북부 홍수, 산사태로 최소 47명 사망

※ 출처: 미국의소리, BBC

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했다. 기후 위기자문단의 데이비드 킹 단장은 "알 자베르 의장 발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럽고 놀랍다"며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면 늦어도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과학은 명확하다"며 알 자베르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5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역시 현 상황에서 지구 온도를 2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게이츠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2도로 유지할 것 같지가 않다"며 "다행히 3도 이하로 유지한다면 여러 나쁜 영향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인도, 중국 경기 침체 반사이익 뭄바이 거래소 신규상장 45% ↑

올 209건... 中 선전 126건 그쳐

올해 인도 증시의 신규 상장(IPO) 건수가 급증하면서 홍콩 거래소를 추월했다고 이혼계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EY에 따르면 뭄바이에 위치한 국립증권거래소와 봄베이증권거래소의 올해 IPO 건수는 전년비 45% 늘어난 209건에 달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업 항구인 영연체 'JSW 인프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첼로월드', 제화제조사 '캠퍼스 액티브웨어', 콘돔과 임신 테스트 키트 제조사 '팬카인드 파마' 등이 올해 인도 증시에 로 입성했다. 중소형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소규모 기업 상장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증시를 보면 선전거래소(126건), 상하이거래소(99건), 홍콩거래소(61건)의 올해 IPO 건수는 인도에 못 미쳤다. 각각 증시의 IPO 비율도 전년 대비 33%와 36%·19% 하락했다. 특히 인도 뭄바이 거래소의 IPO 건수가 홍콩거래소를 넘어선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딜로이트가 2003년부터 IPO 데이터를 수

집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홍콩(53억 달러) 증시의 자금 조달 규모가 인도(66억 달러)에 비해 뒤처졌다. 인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경제강세와 정부의 신규 인프라 추진, 주식투자 열기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중국 본토 거래소 수준은 넘지 못했다. 링고 최 EY 아시아태평양 리더는 "인도는 높은 젊은층 인구 비중과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인도 IPO 시장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는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혜도 누리고 있다. 인도 증시의 벤치마크인 섀넥스 주가지수는 올 들어 이달 1일까지 10.3% 상승한 것과 달리 중국의 벤치마크인 CSI300 지수와 홍콩의 항셱지수는 오히려 10.4%와 16.5%씩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클라우드의 상장 철회 등 홍콩거래소가 마·중 긴장 고조, 본토 경제에 대한 우려, 중국의 해외 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이 중국 증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이진영 기자 mint@

美 군함 홍해서 피격... 예멘 반군 드론 추정

예멘 반군 "이스라엘 선박 공격"
이스라엘 "우리와 무관한 선박"

홍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상선 등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렸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홍해에서 미 해군 군함 1척을 포함한 상선 등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미 해군 구축함 '카니' 호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 상에서 공격 받았다"라며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에 "공격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약 5시간 지속했다"라며 "구축함 카니호가 공격받으면서 드론을 최소 1대 격추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 이날 예멘 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격 대상을 두고 "이스라엘과 관

련된 선박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격받은 선박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加里 소장은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이스라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황상 예멘 반군이 공격한 선박이 미 군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피격과 관련해 CNN은 "미 해군 군함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게 아닌, 군함을 향해 날아오던 미확인 드론을 격추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알래스카항공 '100년 라이벌' 하와이안항공 인수

인수가 19억弗...美 빅4와 본격 경쟁

알래스카항공이 하와이안항공을 인수하면서 100년 경쟁의 역사도 마무리 짓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알래스카항공은 하와이안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금액은 약 19억 달러(약 2조4800억 원)에 달한다. 인수와 함께 알래스카항공은 하와이안항공 지분을 주당 18달러에 산다. 동시에 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도 부담하기로 했다. 인수 거래가 끝난 뒤에도 두 항공사는

각 브랜드를 유지한다. 다만 알래스카항공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장까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알래스카항공의 벤 미니쿠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한 단계 진화"라며 "우린 하와이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빅4(델타·아메리칸·유나이티드·사우스웨스트)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규제당국과 하와이안항공 주주들의 승인이 남았다. 특히 규제당국 승인이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에선 4대 항공사가 현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요 항공사들의 독과점 문제가 연일 거론된다. 이번 인수를 통해 5대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 알래스카항공은 이들 빅4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규제당국이 이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은 최근 항공사 거래에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 규제 당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상용차 생산 핵심거점... “수소전기트럭 허브 될 것”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국내 상용차 전용 생산기지. 현대차 전주공장(이하 전주공장)의 정체성을 요약한 한 문장이다.

현대차 상용 부문의 핵심축인 전주공장은 최근 전동화는 물론 전동화로 인한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전주공장은 수소연료전지(FCEV) 상용차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1일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전주공장을 직접 찾았다.

전주공장은 울산공장, 아산공장과 달리 상용차만 생산한다. 1995년 울산공장에서 상용차 부문만 이전해 설립됐으며 전체 부지 면적 130만㎡에 약 5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는 트럭, 버스를 포함한 14개 차종을 생산한다. 연간 생산능력은 약 11만 대 수준이다.

완성차 업계 트렌드인 전동화에 맞춰 전주공장 역시 차세대 상용차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7년 전기 버스 ‘일렉시티’를 생산한 데 이어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생산하는 등 이미 굵직한 발자취도 남겼다.

현대차 전주공장 가보니

연산 11만대... 14개 차종 생산
파이롯트동 시험 생산 라인서
전기버스 등 판매용 차량 조립
수소상용차, 내연차 대체 기대

이날 방문한 곳은 전주공장 내 상용 파이롯트(PILLOT)동이다. 2018년 완공된 파이롯트동은 특정 모델을 양산하기 전 개발차나 시작차를 시험 생산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양산차 생산 공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의장, 조립 등 차량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정이 가능하다.

전주공장 관계자는 파이롯트동에 대해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이 아닌, 차량을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임시 생산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생산 라인이지만 아직 수소, 전기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이곳에서 생산된 전동화 차량은 이미 글로벌 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상용파이롯트동에서 중형 저상 전기 버스가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날도 파이롯트동 한쪽에서는 9m 길이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 4대가 조립되고 있었다. 일부 버스에는 5-6명 정도의 작업자가 의장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승용차 양산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

동하는 차량에 2명 정도의 작업자만 배치되는 것을 생각하면 생소한 광경이다.

이곳에서 생산 중인 중형 저상 전기 버스는 양산에 필요한 상품성을 확보해 올해 약 80대가 판매됐다. 연간 판매 목표는 90대다. 수요가 늘면서 내년 4월까지 전주

공장 내 대형 공장으로 이관, 양산할 계획이다.

또한 파이롯트동에서는 차세대 스택(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을 탑재한 상용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 중이다. 현재 생산 중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의 후속 모델이다. 차세대 스택은 현재 넥소 등에 사용되는 스택보다 내구성이 2-3배 가량 강화, 장거리를 주행하는 상용차에 적합하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0년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미국 등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전기 상용차 시장 대신 수소 상용차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전주공장 관계자는 “현대차는 수소 사회로 진입을 예고하며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궁극의 대안으로 수소전기차를 꼽았다”며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은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보다 가벼운 수소배터리 시스템으로 장거리 고중량 화물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고 말했다. 전주=이민재 기자 2mj@

“한화모멘텀, 배터리 공정장비 매출 7년내 3兆”

4일 ‘2023 한화 배터리 데이’ 개최
세계 유일 이차전지 전공정 장비사
스마트 솔루션 차별화해 기술 선점



양기원 한화모멘텀 부문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3 한화 배터리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주)한화 모멘텀 부문(이하 한화모멘텀)이 2024년까지 이차전지(배터리) 공정 장비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화모멘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차전지 사업설명회 ‘2023 한화 배터리 데이’를 개최했다.

양기원 한화모멘텀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기술 혁신으로 배터리 전 공정의 장비 혁신을 이루고,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모멘텀은 2009년 소재·전공 공정 장비를 출시하며 이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차전지 전 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화모멘텀이 유일하다.

전략 발표를 맡은 류양식 한화모멘텀 이차전지사업부장은 “미국 내 전기차 시

한화모멘텀은 △세계 최초 무인 코팅 기술 △세계 최대 생산능력(CAPA) 갖춘 소성로 개발 △턴키(Turn-key) 솔루션 사업 본격화 △스마트 팩토리 상용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류 본부장은 “한화모멘텀의 차별화 요소는 기술적으로 가장 스마트 솔루션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라며 “대기업으로서의 안정감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소재 기관, 고객사와 공동 협력해 차세대 소재·공정 설비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한화모멘텀은 차세대 양극재 공정 장비와 실리콘 음극재 공정 장비, 전고체·건식극판 공정 장비, 차세대 폼팩터용 조립 설비를 개발 중이다.

이형섭 한화모멘텀 연구개발(R&D) 센터장은 “생산성 원가 중심의 기술 개발 전략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소재·공법 변경 등의 복합적 기술 개발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겠다”면서 “전고체 공정 설비와 건식극판 제조 기술은 2028~2030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KAI “軍 정찰위성 1호기서 본체개발 등 중추역할 수행”

SAR정찰위성 개발 전반 참여
“기술향상 통해 우주개발 기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일 발사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핵심 구성품 및 위성 본체 개발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을 사용해 발사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호기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를 기반으로 광학·적외선(EO·IR) 탑재체를 장착한 초고사양의 실용급위성이다. 이후 내년부터 차례대로 추가 발사 예정인 정찰위성 2호기부터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가 장착될 예정이다.

KAI는 2018년 11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EO·IR 정찰위성의 본체 주관개발 계약체결을 통해 핵심 구성품 및 위성 본체를 개발해 왔다. 시스템 공동설계 및 조립·시험에도

참여하는 등 정찰위성 개발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KAI는 SAR 정찰위성의 개발 전반에도 참여하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개발하고 있는 SAR 정찰위성의 시제 제작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SAR 위성체를 개발하고 있다.

정찰위성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주요 관심 지역의 관측자료를 수 시간 내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부터 차세대중형위성,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등 지난 3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우주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민간 우주사업회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KAI 관계자는 “국가 우주발전을 위해 성실히 개발에 참여해 얻은 성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 우주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한화시스템, 자체개발 소형 SAR 위성 발사 성공

지구관측 위성 시장 개척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민간주도의 상용 지구관측 위성이 자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4일 밝혔다.

합성개구레이더(SAR) 시스템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에 레이더파를 차례대로 쏜 후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선삭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낸다.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가능해 에너지 탐사, 안보 분야 및 분쟁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발사는 우주강국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수출을 통제해왔던 분야에서 국내 첫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사체는 정부가 앞서 개발한 고체 발사체 및 궤도 진입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정부 기술지원과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했다.

현재 한화시스템은 용인연구소 위성관제센터에서 위성과 지상 기지국과의 첫 교신을 대기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을 활용해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B2B(기업 간 거래)용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위성 영상 정보를 자동 융합·분석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은 민간주도의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K-우주산업 대표 위성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STX, 모잠비크서 흑연·바나듐 개발권 확보

음극재 주요 원자재 주도적 확보
이차전지 핵심 광물 인프라 완성

STX는 전 세계 흑연 생산량 2위인 모잠비크에서 흑연(Graphite)과 바나듐(Vanadium)의 생산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생산을 앞둔 모잠비크 광산은 2019년 STX가 광산 전체 생산량의 40%에 대해 이미 판매권(Off-take) 계약을 체결한 카올라 광산이다. 카보델가도 지역에 있는 3000헥타르(ha) 면적의 대규모

모 광산이다.

카올라 광산에는 흑연 3700만 톤(t)이 매장돼 있고, 음극재용 고순도 제품 기준으로는 500만 톤에 이른다.

이번 계약으로 STX는 기존 니켈, 리튬에 이어 음극재 주요 원자재인 흑연까지 주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양극재와 음극재를 통합하는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 공급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됐다.

STX 관계자는 “카올라 광산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
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
'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 이십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
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
'기운 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

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사야해”... ‘웹툰 굿즈’에 지갑 여는 MZ세대

웹툰업계, IP 밸류체인 강화

웹툰업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도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웹툰 독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에 빠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팝업스토어를 IP 사업의 한 축으로 확장하는 등 IP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다.

웹툰업계는 웹툰 IP 기반의 굿즈를 판매하며 온라인 속에서 콘텐츠로만 즐기던 웹툰을 일상으로 확장해 팬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원천 I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IP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황재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사업팀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비즈니스에 있어 IP의 성공 가능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팬덤과 인기를 갖춘 유수의 IP를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드라마와 영화 등 2차 IP 사업을 진행하

카카오·네이버 웹툰 팝업스토어 한번에 50만~70만원 어치 구매 10·20대 ‘큰손’ 고객들로 복적 2차 콘텐츠 매출 30% 이상 경증

거나, IP 제작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웹툰업계가 굿즈 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연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편당 300원의 결제 금액이 지출하는 웹툰과 다르게 굿즈의 경우 평균 5만 원~50만 원 이상 지출하며 콘텐츠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네이버의 3분기 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상승한 4349억 원, 카카오의 콘텐츠도 매출은 같은 기간 30% 증가한 1조1315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7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웹툰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팝업스토어 열고 IP 주변 확대 나섰다.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는 지난 2020년 여름은 작가가 카



9월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네이버웹툰 공식 팝업스토어 ‘툰 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웹툰 굿즈를 쇼핑하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웹툰

카오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웹소설이 원작으로 2022년 웹툰으로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연재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행사 관계자는 “10·20세대 손님이 가장 많고 한꺼번에 70만 원 어치를 사간 고객도 있다”며 “재고가 없는 제품을 미리 결제하고 택배로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큰 쇼핑백을 제공하는데 일단 달라고 하시고 한가득 담아가신 고객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웹툰업계가 팝업스토어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는 팬들의 웹툰 세계관과 소통하고자 하는 팬들의 니즈 때문이다.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웹툰을 보면서 웹툰 속 물건이 내 방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며 “스티커, 포토카드, 랜덤 카드를 사서 총 6만 원을 끊었다”고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외에도 2건의 IP 팝업스토어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웹툰이 아이돌 팬덤만큼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자 굿즈가 IP 확장의 성공 방정식으로 통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 IP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데못죽)’은 5월 팝업스토어 오픈 행렬이 이어지며 웹툰 IP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데못죽 팝업스토어에는 2주간 1만5000여 명이 방문했고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50만 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웹툰이 11월 부산에서 선보인 ‘마루는 강쥐’ 팝업스토어에는 5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1인당 최대 결제 금액은 65만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웹툰 팝업스토어는 온라인 중심으로 나타나는 웹툰 팬덤의 영향력을 오프라인 채널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팝업스토어로 강력한 팬덤을 입증한 웹툰 ‘마루는 강쥐’와 ‘나한 남자’는 팝업스토어 이후 각종 브랜드의 협업 문의가 크게 늘었고 현재 문구·의류·식품·액세서리·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계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20개월 만에 4만달러 뚫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도 ‘들썩’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20개월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내년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 전망에 하반기 들어 상승해왔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전망되며 4만 달러 저항선을 뚫었다.

4일 오전 9시 코인통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11달러(5189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주말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섰다”며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인하 가능성에 반등 내년 반감기·현물 ETF 등 호재 “국내 가격 글로벌 대비 4% 높아 하락 땀 국내 투자자 더 큰 손실”

이 균형에 거의 가깝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2012년, 2016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올거라고 업계는 예측한다.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5월 이후 1년 반 동안 비트코

인 상승 사이클을 시작했으며, 2021년 11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인 6만 9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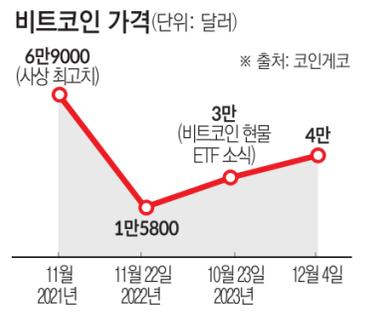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검토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가격 상승의 재료다. 현재 블랙록을 포함해, 워즈덤트리,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둔 상태다. 최종 승인 여부는 내년 3월 중순에 결정날 예정이다. 업계는 결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고 예측한다.

근거 중 하나는 9월 워싱턴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워싱턴 항소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

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SEC는 유사한 상품을 다르게 처리한 데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도 “그레이스케일은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과 99.9%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 상 존재하는 김치프리미엄에 유의해야 한



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5100만 원에서 52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지금 업비트에서는 54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격 대비 약 4% 정도 높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김치프리미엄 형성 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中企 R&D 위해 3.4조 저리융자... 중기부 ‘성과확산 워크’ 개최

금호습빌딩엔지니어링·슈즈엠 등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포상 선정 제품 전시회·투자 설명회 진행

#창업 50년이 넘는 베어링 제조업체 연합시스템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에 밀리던 중 IT 전문가인 2세대가업을 승계하면서 기존 제조업을 IT에 접목했다. 이 기업은 공작기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스마트제조용 서비스플랫폼 개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뤄낸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슈즈엠은 기존 업체를 폐업한 뒤 재창업해 중기 R&D로 인공지능헬스케어 비대를 개발했다. 미용기구 제조업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으로 업종을 전환했고, 대소변 분석 헬스케어 비대를 개발하면서 R&D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조선업 집체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금호습빌딩엔지니어링은 R&D 기술개발로 미 해군 군수 보조용 사업에 진입,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이유로 폐업한 글로벌에스는 폐업 이후 중기 R&D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3D CAD 라이브러리 구축 업체로 거듭났다.

정부가 기술 역량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2026년 3년간 3조4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7일까지 4일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 중소기업 R&D 성과확산 워크’ 행사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첫 주간행사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했다. 슈즈엠과 금호습빌딩엔지니어링, 글로벌에스 등 한계를 딛고 재도전한 기업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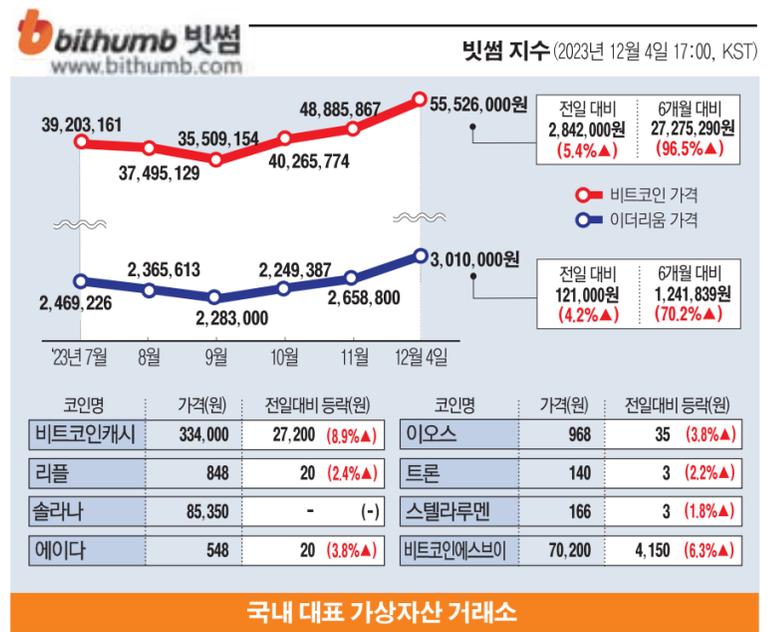
비스의 최근 5년 누적 과제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는 기업에는 스타스텍, 아하, 엔에스티바이오, 쿼드마이너 등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쿼드마이너는 해킹 사고의 빠른 분석 및 대응 기술을 개발, 네트워크 탐지 대응 솔루션(NDR)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등재된 스타트업이다. 최근 5년 누적 과제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0% 이상인 성장성 높은 기업 14곳도 선정됐다.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6개사, 최근 3년간 공공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 기업 7곳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50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제품 전시회와 함께 투자자 대상 IR 피칭, 아마존 입점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R&D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은행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2024~2026년 3년 동안 3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2600억 원의 투자 지원도 진

행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위기를 성

공기회로 만든 중소기업의 우수한 R&D 성과를 홍보하는 첫 행사”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중견,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알츠하이머 치료 꿈 이뤄질까... 속도전 나선 K바이오

7년 내 18조 시장 예상

아리바이오·젬백스 후기 임상
사페론·이수앱지스 파트너 모색

치매 정복을 꿈꾸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신약개발이 무르익고 있다. 여전히 무주공산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K바이오가 노다지를 캘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후기 임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리바이오는 다중기전 경구용 치료제 'AR1001'을 개발 중이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1250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임상 3상은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후 국가임상 시험지원재단 공공플랫폼에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만 55세 이상 90세까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50~200명을 모집하고, 삼진제약과 함께 진행한다.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AR1001은 강력한 PDE5(Phosphodiesterase5) 억제 작용으로 치매 진행 억제 및 환자의 기억

기업	물질명	임상 단계	특성
아리바이오	AR1001	글로벌 3상	다중기전 경구제
젬백스	GV1001	글로벌 2상	다중기전 주사제
오스코텍·아델	ADEL-Y01	미국 1a/1b상	타우 타깃 항체
사페론	누세린	국내 1상	염증억제 경구제
이수앱지스	ISU203	비임상	염증억제 항체치료제

※출처: 각사

력과 인지기능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 단일 표적 접근법을 벗어나 뇌 신경세포 내 신호전달경로(CREB)를 활성화해 신경세포 사멸 억제 및 생성을 촉진하고, 윈트(Wnt) 신호전달체계 활성화에 의한 시냅스 가소성을 높인다. 다양한 기전에 기반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목표다.

젬백스엔카엘은 텔로머라제 유래 펩타이드 기반 신약물질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7개국에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임상 2상은 완료했다. GV1001의 알츠하이머 국내 실시권을 취득

한 삼성제약은 4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국내 임상 3상에 투자한다. 회사는 중등도 및 중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개발 성공 시 높은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작용기전을 보면 GV1001은 미세아교세포와 성상세포에 존재하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수용체(GnRHR)에 결합해 뇌 내 염증(neuroinflammation)을 억제한다. 항염, 항산화, 미토콘드리아 보호, 뇌 내 면역 환경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다중기전 약물이다.

초기 임상 단계 기업 연구도 활발하다.

오스코텍은 아델과 개발하는 'ADEL-Y01'의 미국 임상 1a/1b상을 올해 9월 승인받았다. 아델은 서울아산병원 뇌과학실 윤승용 교수가 창업한 회사다. ADEL-Y01은 타우 단백질 중정상 타우에는 작용하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타우 병증의 핵심 병리 인자인 아세틸 타우(tau-acK280)만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항체 후보물질이다.

사페론은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바이오유럽 2023'에 참가해 국내 임상 1상 투약을 시작한 '누세린(NuCerine)'을 소개했다. 누세린은 G단백질 결합수용체(GPCR19-P2X7)를 조절해 염증

복합체 활성을 억제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근원적인 뇌 내 염증을 감소시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생체폐기물 처리를 맡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 염증을 완화해 보호하는 기전이다. 사페론은 국전약품과 국내 판권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국내 임상 1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앱지스는 'ISU203'의 비임상 결과를 미국신경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회사는 올해 4차례 국제학회에 참석, ISU203의 본격적인 사업화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 ISU203은 혈액내 ASM(Acid Sphingomyelinase)의 증가된 활성을 억제해, 간접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증을 완화하는 작용기전이다. 지난해 말 비임상을 개시해 연내 마무리한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8개국(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일본·중국) 시장규모는 2020년 22억 달러(약 3조 원)에서 2030년 137억 달러(약 18조 원)로 연평균 20%씩 늘어날 전망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국산 신약 1년째 잠잠... '37호 주인공'은 제일약품 유력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이 국산 신약 36호로 허가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신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강화로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37호 신약 탄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이 국산 신약 37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스타프라잔은 올해 3월 중국 제약

대웅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이후 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을 6월 허가 신청... 내년 출시 목표

사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총 1억 2750만 달러(약 1600억 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자스타프라잔은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성질환용제 시장에서 기존 프로토펙트저해제(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

CAB) 계열 약물이다. 올해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유럽소화기학회(UEGW 2023)'를 통해 자스타프라잔 임상 3상 데이터가 공개됐고, 대조약과 비교해 약효와 안전성 측면에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제일약품은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자스타프라잔이 내년 상반기 중 국산 신약 37호로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통상 품목허가 후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 내년 상반기 중 승인받고, 약가 평가와 급여 절차를 거쳐

내년에 출시가 목표"라고 말했다.

자스타프라잔 외에 동아에스티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 'DA-8010', LG화학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등도 37호 신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DA-8010과 티굴릭소스타트는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세노바메이트는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받았지만 국내 허가를 위한 임상 절차 과정에 머물러 있다. 임상 3상이 3~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하면 당분간 신약 허가 소식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업계는 국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신약 탄생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재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부회장은 "1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신약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신약 개발을 마라톤에 빗대어 보면 40km 이상 시점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산·학·연 인프라, 기술력, 비즈니스 능력 등을 갖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좋은 결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글로벌 빅파마·빅테크 잇단 협업... AI 신약개발 나선다

글로벌 제약사와 IT기업이 인공지능(AI)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늘고 있다. 엔비디아, IBM 등 IT기업은 기술을 앞세워 신약개발 기업이나 제약사와의 협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빅테크 기업이 AI 신약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와 AI 신약개발 기업 간 협업이 많았다면, 최근엔 IT기업과 손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제약사와 IT기업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큰 물질 조합을 빠르게 찾아 개발 성공률과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단백질, 항체 등 데이터와 이를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제약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AI

제약사 데이터+IT기업 기술력 결합 땀 개발 성공률·속도 상승

기업의 기술력이 맞아 떨어지면 협업이 많아졌다.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달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AI 신약 개발에 적극적이다. 캐나다 AI 바이오 기업 페노믹AI(Phenomix AI)와 총 5억 달러(약 64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스트로마가 두꺼운 암(stroma-rich cancer) 대상의 표적 치료제 발굴에 나선다.

스트로마는 암 조직을 둘러싼 두꺼운 보호막으로, 스트로마가 두꺼울수록 치료제가 암 조직에 침투하기 어렵다. 때문에 보호막이 얇아져야 암세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페노믹AI의 리보

글로벌 빅파마·빅테크 기업의 AI 신약개발 투자 및 협력

12월	아스트라제네카-앱스시	2억4700만 달러 투자
	베링거인겔하임-페노믹 AI	5억 달러 규모 기술이전
11월	베링거인겔하임-IBM	신약개발 연구 협약
	엔비디아-제넨텍	신약개발 연구 협약
8월	엔비디아-수퍼루미날메디슨	투자 참여
	엔비디아-제네시스 테라퓨틱스	투자 참여
7월	엔비디아-리커전파마슈티컬스	5000만 달러 투자
4월	IBM-모더나	신약개발 연구 협약

※출처: 각사

핵산(RNA) 분석 컴퓨팅 플랫폼 'scTx'을 활용해 항암 신약 물질을 발굴한다. 앞서 베링거인겔하임은 IBM과 새로운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플랫폼 개발협약도 체결했다. IBM이 개발한 AI모델에 자사 데이터를 결합해 신규 항체치료제를 발굴·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BM은 올해 4월 모더나와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mRNA 기반 치료제와 백신 설계를 위한 AI모델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모더나는 IBM의 분자 발견 AI모델 몰포머(MoLFFormer)를 적용해 안정성과 효능을 갖춘 mRNA 의약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일본 아스트라제네카는 3일(현지시간) AI기업 앱스시(Absci)와 암 치료용 항체플랫폼 개발을 위해 최대 2억

4700만 달러(약 3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앱스시가 보유한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분석해 효과적인 항체를 탐색한다.

반도체기업 엔비디아는 올해 3월 '바이오니모(BioNeMo)'라는 거대 언어모델 베이스의 신약개발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 AI 신약개발 기업과 협력을 이어갔다. 올해 7월 AI 신약개발사 리커전파마슈티컬스에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투자했고, 8월엔 제네시스 테라퓨틱스, 슈퍼루미날 메디슨 등 AI 신약개발 기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11월엔 로슈자회사 제넨텍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넨텍이 보유한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컴퓨팅 기능 및 AI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개발에 나선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값을 돈 많은데, 공간은 바닥...“건설사 줄도산, 내년이 진짜”

올해 공사업체 폐업신고 512건
작년보다 68%↑ 17년만에 최대
10월말 부도 건설사 13곳 달해
시장경색·고금리·우발채무...
원금 상황은커녕 이자 비용도
지방건설사 중심 줄도산 가능성

혹한기를 지나고있는 건설업계가내년에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분양증가로 우발채무위험이 고조되면서 재무 건정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종합공사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512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304건) 보다 68.8% 증가했다.

작년 전체 폐업 신고 건수 362건을 뛰어넘은 건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53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이다. 재무 건정성 악화로 부도를 낸 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부도 건설업체 수는 총 13곳(종합건설사 7곳, 전문건설사 6곳)이다. 이들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 109위 대창기업, 113위 신일, 578위 금강건설, 경상남도 지역 8위 건설사인 남명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 안팎에선 올해 보다 내년에 폐업·부도 위기 내몰리는 건설업체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과 고금리, 불어오는 우발채무 등 다발적 요인이 겹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낮고, 사업장 수가 적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로 주 수입원인 지역 공공공사 발주가 줄면서 공간이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쌓아둔 현금과 정부의 PF 보증확대로 버텼지만, 더는 한계라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A 중견건설사 임원은 “지난 몇년간 주택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2년 가까이 버틴 것”이라며 “원금 상황은 고사하고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 내년에는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 업계도 같은 기조의 전망을 내놨다. 올 9월 말까지 집계된 주요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28조 원으로, 6월 말보다 3000억 원 가량 늘었다. 주요 건설사 13곳의 순차입금 규모는 10조 원을 웃돈다. 한신평은 내년도 경기 부진 장기화와 공사원가 상승으로 PF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한 사업장은 책임을 나눠 지는 계약 구조를 뚫는다. 쌓아둔 대손상각비로 헛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곳들은 내년에 EOD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 한 곳이 폐업하더라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쇄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단위: %)



올해 매매회전율 역대 두번째 낮은 3.04%

뽕뽕 언 아파트 매매 시장

“하반기 들어 거래 회복 주춤”

아파트 매매시장이 뽕뽕 얼어붙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 간 눈높이 차이 등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3.04%로 지난해(2.2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가구수(준공후기존아파트, 총가구수 30가구 미만 단지 제외) 대비 매매된 해당 아파트 거래량 비율이다. 수치가 낮아지면 거래빈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파트 매매 회전율이 5% 이하를 기록한 것은 작년과 올해뿐이다. 2020년은 7.9%, 2021년은 5.36%다. 올해 회전율은 최고치를 찍은 2006년 8.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잉공급 등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재로 올해 상반기 가격 회복세에서 벗어나 있던 지방은 역대 최저 회전율이 속출했다.

충남 매매 회전율은 4.27%로 지난해보다 0.24%p 하락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도(4.02%)와 경북(3.87%), 전남(3.77%), 전북(3.7%), 경남(3.44%), 제주도(2.53%)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대기 수요가 있는 곳 위주로 회전율이 개선됐지만, 하반기 들어 매매 회복 흐름이 다시 주춤한 모습”이라며 “9월 특례보증자 리론(일반형) 종료와 높은 대출이자 부담 지속 등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졌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위축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 회장 5년만에 경영 복귀

“초심 돌아가 사회적 책무 완수”
지주사 TY홀딩스 대표 맡을 듯

태영그룹 윤세영(사진) 창업 회장이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4일 태영그룹은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회장이 경영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50년 전 태영건설을 창업할 때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각오로 계열사를 포함해 그룹 전체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올해 8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알짜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추가 매각하는 등 자금책과



사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5년여만에 복귀하는 윤 회장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

이사에 선임돼 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2019년 3월 윤석민 회장이게 태영그룹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보규 기자 jbk@



www.hauri.co.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안전을 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HAURI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어린이들 누구 하나
대한민국 어디 하나
빠짐없이 행복하도록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 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담보상태

이달 중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정 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담보 상태다.

카드업계는 수익 악화를 겪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연내 발표예정 ‘개선안’ 마련 못해 수수료 내릴수록 카드사 수익 악화 업계 “재산정 폐지·기간 조정해야 해외평균 1.5%... 인상조정 필요” 당국, 재산정 주기 3→5년 검토

최근 정부의 상생금융 의지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수록 카드사의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돼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내렸다.

카드업계는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카드사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2007년 당시 결제금액의 4.5%까지 부과했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0%대로 내려앉았다. 현재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 0.5%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 1.1~1.5%로 인하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약 300만 개 중 96% 수준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도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

드)의 총수익은 10조234억 원이다. 이중 가맹점 수수료는 38.3%에 해당하는 3조 9210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까지 4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8.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던 지난 2021년 카드업계가 해당 결정에 반발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내릴만큼 내려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해외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라는 점을 볼 때 한국도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미래 수익 창출과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서라도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원 기자 jsw@

‘상생금융 압박’에 車보험료 인하 검토중인데...

실손보험료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 인사이트

내년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인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새 회계제도(IFRS17)가 이드라인 영향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내면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생겨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내년부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되면서 갱신 고객을 잡아야 하려면 보험료 인하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쓸 것인 분석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 반감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인 손보사는 실손보험료까지 낮추는 부담을 지게 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금감원 IFRS17 가이드라인 효과다. 가이드라인에 따

IFRS17 영향... 흑자면 예실차 커 1세대 손해율도 ‘뚝’... 적자 줄 듯 건보료와 함께 올리면 국민반감

르면 실손보험과 관련해 갱신 보험료의 최종 수렴 시점의 목표손해율이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다. 목표손해율 100%에 도달한다는 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합이 0원으로 만드는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정했다는 걸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내면 가정과 달라져 예실차가 생기게 되고 재무제표 손익이나 CSM(계약서비스마진)으로 못 잡게 된다”면서 “예실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험사 입장에서 불리해지고 결국 실손보험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실적 전망도 보험료 인하에 무게를 더한다. 최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백내장 과잉 진료료가 잦아들면서 향후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적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사의 자체 심사도 강

화됐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통원치료 수준 정도의 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판결 이후 백내장 관련 수술 건수는 올해 들어 90%가량 감소했다. 백내장과 인진료가 줄면서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20년 141.9%에서 지난해 말 124.9%까지 줄었다.

올해부터 생보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본 곳도 생겨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592억 원의 흑자를 거뒀다. 생·손보 통틀어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손보사 중에서도 올해 4월 1세대 보험료를 남몰래 인하한 보험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적자 상품이 아니니, 갱신 고객들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율을 인상할 예정인 것도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건보 요율을 올리는 마당에 실손보험료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 반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선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최민호(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가 4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추진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지원 등 금융사기를 예방한다.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금감원

KB국민카드 ‘판다카드 푸바오 에디션’ 출시

KB국민카드가 에버랜드의 인기 스타 ‘푸바오’ 이미지를 담아 ‘KB국민 에버랜드 판다카드 푸바오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카드는 에버랜드 최고 마스코트 ‘푸바오’를 전면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푸바오 에디션’은 총 1000매 한정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국민카드는 ‘푸바오 에디션’ 한정판 디자인 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전월 실적 무관하게 국민 에버랜드 판다카드로 결제 시 1인당 최대 1인 50% 할인 혜택을 제공(단, 에버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예약 건에 한함) 한다. 또



KBx판다월드Q-패스 특가 패키지 일선 착순 30개 한정 판매와 푸바오 에디션 신규 발급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33명에게 에버랜드 모바일 기프트카드 3만원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연회비는 K-월드(JCB, UPI겸용) 1만2000원, 비자-마스터 브랜드는 1만7000원이다. 발급 신청은 △KB페이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성원 기자 jsw@

“얼굴 인식으로 ATM서 돈 뽑고 이체하세요”

신한은행, 금융권 첫... 300대 우선도입

신한은행 고객들은 카드, 통장 없이도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ATM 출금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생체 정보 중 얼굴을 활용한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는 ATM에서 카드, 통장 등 매체가 없어도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금 및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솔(SOL) 앱이나 영업점에서 얼굴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전국에 배치된 신한은행 ATM 중 300여 대에 우선 도입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월 솔(SOL) 앱에 처음으로 얼굴 인증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TM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영업점 창구, 디지털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까지 주요 고객 접점 채널에서 얼굴 인증 정보를 활용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ATM 조회, 출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키



오스크에서는 얼굴 또는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입출금 통장신규 △체크카드 신규·재발급 △각종 제신고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향후 생체 인증 서비스 적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안쓰는 쿠폰 ‘카뱅’서 용돈으로 적립하세요”

카카오뱅크, 모바일 커머스 첫 발

카카오뱅크가 4일 ‘쿠폰 사고팔기’ 제휴 서비스를 출시,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는 카카오뱅크가 모바일쿠폰 중고거래 제휴사 ‘기프트스타’와 손잡고 선보이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체크·미니(mini)카드 결제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거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쿠폰 카테고리로는 음식, 도서, 외식, 패션, 휴대폰 데이터, 뷰티, 주유 등으로 다양하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필요한

모바일 쿠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할인폭은 최소 3%에서 최대 93%로, 평균 할인율은 20%다. 구매한 쿠폰은 ‘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고 싶을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다.

쓰지 않는 쿠폰은 판매해서 바로바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처에 교환처가 없거나, 이벤트로 받아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쿠폰 등이다. 판매한 쿠폰에 대한 정산금은 판매시 등록된 카카오뱅크 계좌 또는 미니로 2영업일 내 입금된다.

이번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체크·미니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김범근 기자 nova@

‘고점론’ 닛케이 ELS 불타... ‘제2 H지수 사태’ 올 수도

격랑의 ELS ①

서울 개포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래연(42·가명) 씨는 최근 한달간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항생차이나기업지수(HSCEI, 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 씨는 오전 9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다. “ELS에 들어 있는 돈 4000만 원 괜찮겠죠?” 그는 지난 10월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했다.

H지수 기초자산 ELS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다른 ELS에 목돈을 물어둔 투자자들까지 최근 긴장하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 PB센터장은 “다른 기초자산 ELS가 단기에 손실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격

지난달 지수연계 ELS 1.4兆 1월 대비 발행규모 2.6배 ‘쑥’ 지수 유지해야 조기상환 가능 하락 전환하면 원금손실 우려 지수 고점엔 ELS 투자 주의

정하지 말라”는 답을 하지만 많은 고객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몸값이 치솟는 닛케이225지수 기초자산 ELS 투자자들은 ‘제2의 H지수 ELS’ 꼴이 날까 좌불안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가 고점으로 치솟은 만큼 닛케이225지수도 하락 가능성이 커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 닛케이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금액은 총 5418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7월부터 매달 급증해 월별 발행량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10월과 11월 닛케이225지수 연계 ELS 발행액은 각각 1



조4192억 원, 1조395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한 ELS 발행량만큼 닛케이225지수도 급등했다는 것이다. 올초 2000선이던 닛케이225지수는 현재 3300을 넘어섰다. 올해 일본 증시가 역대급 엔저 호황을 누리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행된 관련 ELS는 3개월, 6개월 뒤 조기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조기상환 시점에 기초자산 지수

가 ELS에 가입할 때보다 정해진 기준만큼 상승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데, 고점에 달한 닛케이225 지수가 최고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다.

조기상환이 순연된 닛케이 ELS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은 더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제2의 H지수 ELS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닛케이225 지수가 만기 시점에 1989년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치솟지 않는다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심지어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지수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 통상 ELS는 3년 만기로,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올해 발행된 ELS는 2025년이 만기다.

기초자산을 여러 개 연계한 ELS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ELS는 한 ELS에 H지수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유로스톡스50 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1~3개씩 편입한다. 이 경우 다른 지수가 요건을 충족해도 닛케이225 지수에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지수의 하락 폭만큼 손실이 확정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아닌데, 기초자산 연계를 접에서 마치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보다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변화가 잦은 경제를 변수로 지수가 오르내리는 건 가능하다. ELS는 지수가 떨어질 때 사야 고점에 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엔 위험하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에코프로머티 아쉬운 개미라면... 주목해야 할 이달 공모주

평년비 적은 7개 기업 상장 준비 LS머트리얼즈·블루엠텍 등 기대

직장인 A 씨는 11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일반청약에 균등배정으로 신청해 4주를 받았다. 상장 당일 평단이 4만 4500원에 전량 매도해 3만5200원을 벌었다. 나름 고점에 팔아 점심값 정도를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주가를 보면 아쉬움만 남는다. 공모가보다 4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 첫날의 시초가 매도 전략 이외에도 상장 이후 전방 시장이나 기업가치 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의 수익성을 기대하는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가상승에

반 개인투자자들이 12월 기업공개(IPO)에 주목하고 있다. 연말 증시가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모주 육석가리기로 올해 마지막 수익률 높이기엔 나쁘지 않다는 전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IPO 예상 기업수는 10~12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평균인 17개 대비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의 20개와 비교해도 낮다.

이달 1일 기준 기관수요예측을 마치고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7개다. 12월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은 3000억~3500억 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같은달 평균 공모금액 4337억 원 대비 낮다. IPO 시장의 예상 시가총액도 1조4000억~1조5000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

LS머트리얼즈는 1일과 4일에 일반청약을 진행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정일은 12일이다. 상장 후 시총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의약품 유통 플랫폼 기업 블루엠텍도 4~5일 일반청약에 나선다. 블루엠텍은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5000~1만9000원) 상단인 1만9000원에 확정했다. 총 1749곳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582.24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 이상을 제시한 기관 비중은 99.37%에 달했다. 상장 후 시총은 2023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다.

이밖에 DS단석도 이달 5~11일 기관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공모희망가는 7만9000~8만9000원으로, 14~15일 일

반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DS단석은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일반청약을 마치고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대기중이다. 지난달 일반청약을 마친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와이바이오로지스는 이달 5일, 아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기업 케이엔에스는 6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셈, 현대힘스, 이닉스, 오상헬스케어, 케이워드 등이 심사 승인을 받고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뱅크는 내달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웹어워드코리아 2023 최고대상에 삼성은행

삼성자산운용은 ‘웹어워드코리아 2023’에서 PC웹 최고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웹어워드코리아 2023은 인터넷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들이 비주얼 디자인, 사용자환경(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등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PC웹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에코프로비엠, 44兆 대형 수주에 “밸류 부담” vs “실적 가시화” 팽팽

대신증권 목표가↓·유진증권 “비중 축소” NH투자증권 긍정적 분석... 제각각

삼성SDI와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에코프로비엠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4일 대신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췄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가(20만 원)를 유지하고 비중 축소(Reduce) 의견을 제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 27만 원을 유지하고 투자조건 보유(Hold)를 권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중장기 공급계약으로 내년부터 삼성SDI향 매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5년간 총 계약 금액은 기존 에코프로비엠의 삼성 SDI향 매출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기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중장기 실적 전망치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으로 인한 실적 추정치 변화는 없다”며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만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번 공급계약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 만큼 긍정적이란 분석도 나왔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NH투자증권의 기존 캐파 목표치에 포함된 물량임으로 캐파와 실적의 상향조정 요인은 아니다”라며 “다만 중장기 캐파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 삼성SDI 및 관련 협력사들의 중장기 실적 전망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joku@

하이투자증권-투게더아트, 토큰증권 사업 손잡았다

미술품 기반 거래 서비스 추진

하이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와 토큰증권(ST)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장과 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투자증권과 투게더아트는 MOU를 통해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

권 사업 활성화와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및 계좌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투게더아트는 케이옥션 자회사로 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투게더’를 운영 중이며,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미술품 기반 토큰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투게더아트와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 발굴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 차지인과, 11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주식매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KB은행, AI&로봇 ETF 출시 한달 만에 수익률 34%

국내 주식형 ETF 최고 수익률

KB자산운용은 ‘KBSTAR AI&로봇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한달 만에 34.1%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KBSTAR AI&로봇 ETF는 로봇의 두뇌(AI)와 몸통(하드웨어)의 핵심 벨

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AI 소프트웨어, 로봇·자동화, 반도체·전자제품,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에 고루 투자한다. 대표 편입종목은 두산로보틱스(10.3%), 루닛(6.4%), 레인보우로보틱스(6.2%), NAVER(5.8%), 셀바스AI(5.7%), 현대모터에버(5.6%) 등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한파에 겨울의류 불타... 백화점 3사, 실적개선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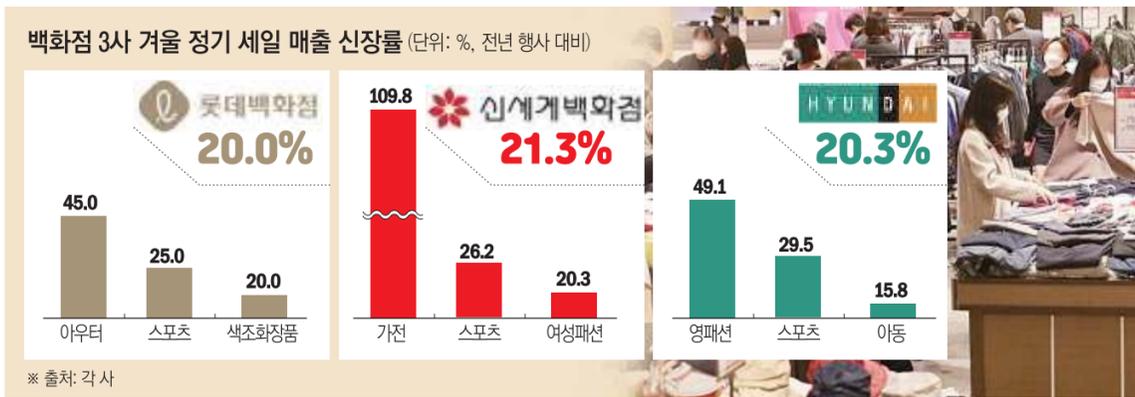
평균 매출 신장률 20.5%

세일기간 매출 일제히 20% 넘어
신세계 쓱데이 가전 매출 2배 ↑
롯데·현대 겨울의류 '1등 공신'

11월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 백화점 업계에 기쁜 소식이 됐다. 겨울의류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 정기세일 기간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은 것이다. 통상 연말은 백화점 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4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겨울 정기세일 기간 국내 주요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의 평균 매출 신장률은 20.5%로 집계됐다. 백화점 3사의 정기세일 매출 증가율이 일제히 20%를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7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정기세일 매출이 전년 동기



(11월 18일~12월4일) 대비 20% 늘었다. 대표적으로 올겨울 최대 유행 아이템인 '솜패딩' 등 겨울 아우터 인기에 아우터 매출이 45%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스포츠(25%), 영패션(15%)이 인기를 끌었고, 남성패션과 여성패션은 각각 10%, 15% 매출이 신장했다. 연말을 앞두고 색조 화장품 매출이 20% 증가했고, 한파용 구스 등 침구 매출도 15% 늘었다. 매장 객수 증가에 따라 F&B(식음료) 매출도 35%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21.3% 늘었다. 추위에 패션 의류 매출이 증가한다. 세일 초반 사흘간 신세계그룹의 최대 쇼핑행사 '쓱데이' 기간과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

특히 쓱데이 영향으로 가전 매출이 109.8%로 가장 크게 늘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스포츠(26.2%), 여성패션(20.3%), 남성패션(12.2%) 등의 매출도 고르게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겨울 더세일' 기간 매출

이 20.3% 신장했다. 날씨 변화에 매출도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이 컸다. 날씨에 따른 기간별 매출을 보면, 최고 기온이 영상으로 비교적 높았던 17일부터 23일까지 매출은 9.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파가 닥친 24일 이후 매출은 신장률이 31.1%로 늘었다. 특히 패딩과 코트 등 겨울 외투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영패션(49.1%), 스포츠(29.5%), 아동(15.8%)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와 같은 겨울 정기세일 흥행에 힘입

어 백화점 업계 4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4분기 백화점 사업부의 매출은 2조3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46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신세계도 백화점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1조9533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32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의 4분기 백화점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32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의 4분기 백화점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32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겨울 정기세일 기간 동안 갑자기 불어온 한파가 업계엔 모처럼 실적 훈풍이 됐다"며 "여기에 연중 최대 할인 혜택 등에 힘입어 패션과 시즌 아이템, 침구, F&B 등 전반적으로 매출 호조를 보인다. 연말 쇼핑 수요가 더 늘 것으로 기대돼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신세계 전략수장 임영록 대표 "라이프스타일 체인저 될 것"

주거·오피스·리테일·복합개발 4대 전략 그룹 유통 뼈대 될 것

"고객의 여가, 주거, 업무 환경을 점유해 시·공간 경험, 삶의 방식을 선도하겠다."

신세계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수장인 임영록(사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2033년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를 선언하며 향후 10년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거, 오피스, 리테일, 복합개발 등 4가지 사업 분야에서 공간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4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임대표는 1일 신세계그룹의 도심 연수원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신세계프라퍼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로서 한 단계 도약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거, 오피스, 리테일, 복합개발 등 4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품격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 인구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시니어, 프리미엄 시장을 정밀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요양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그룹사 콘텐츠를 레지던스와 결합할 예정이다. 또 프리미엄 수요에 맞춰 현대 서비스(호스피탈리티)를 접목한 럭셔리 레지던스 주거 사업을 펼친다. 프리미엄 오피스 개발도 추진한다. 2029년 동서울터미널 오피스 복합개발

에 이어 용산 등 서울 원도심에 프라임 빌딩(연면적 3만㎡ 이상)을 개발, 2033년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프라임 오피스 건물의 연면적 총계를 약 130만㎡ 규모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 가양구와 경기도 파주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심형 쇼핑공간 '스타필드 빌리지'를 30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끝으로 스타필드에 야구장, 테마파크 등 콘텐츠를 접목, 장기 체류 가능한 시설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스타필드 청라라는 스테이 콤플렉스(Stay Complex)로, 동서울터미널은 강북 최대 복합 랜드마크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토탈 웰니스 도시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임대표의 이런 4대 전략은 신세계그룹 유통 전략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임대표는 최근 개편한 신세계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초대 실장이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영전략실 회의를 두 차례 잇달아 주재, 쇄신을 강조한 이후 나온 전략이라 더욱 주목된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인사·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표는 2016년부터 7년간 신세계프라퍼티를 이끌며 '스타필드'를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만들었다. 2021년부터는 스타필드를 넘어 센터필드, 스타필드 빌리지, 스타필드 성수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위스키 소비 연령층 낮아지니... 카페·치킨집까지 진출

투썸·쉐이크쉐·BBQ 등 프랜차이즈 위스키 케이크·쉐 하이볼 등 출시

높아진 위스키 인기와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퉈 협업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MZ세대가 적극적으로 위스키를 즐기는 만큼 이들을 공략하는 전략 메뉴로 키울 기세다. 일각에선 커피와 버거를 주로 파는 기업이 급기야 위스키까지 내세운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각 업체는 이를 불식하기 위해 나름의 '거름망' 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썸플레이스, 쉐이크쉐, BBQ 등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잇달아 위스키와 하이볼 등 주류를 활용한 새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세계 3대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12년'을 넣은 케이크와 하이볼 등을 이달 한정 판매한다. 케이크는 초콜릿 가나슈, 마스카포네 생크림 등에 위스키를 넣었고, 하이볼에는 글렌피딕 원액에 레몬을 더했다. 위스키를 넣어 숙성한 견과류와 견과일을 넣은 독일식 빵 '슈틀렌'도 판매한다. 3종 제품은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인 만큼 투썸플레이스는



BBQ 빌리지 송리단길점에서 판매하는 '레몬보이 산토리 하이볼'과 '오리지널 산토리 하이볼'. 사진제공 제너시스BBQ

철저히 신분증 검사 후 성인에게만 판매한다.

SPC그룹의 버거 브랜드 쉐이크쉐도 신메뉴 '버번 베이컨 버거' 2종을 출시했다. 이는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브랜드 '메이커스 마크'와 협업해 개발했다. 버번이란 이름이 들어갔지만, 무알코올 메뉴다. 버번 위스키와 베이컨, 어니언을 오랫동안 끓여 알코올을 모두 날린 '베이컨 어니언 소스'가 들어간 게 특징이다. 버번 위스키를 사용한 '쉐 하이볼'도 한정 판매한다. 또 다른 버거 브랜드 다운타운너도 12월 한달 동안 미국 버번 위스키 잭다니엘스와 협업해 위스키 칵테일 3종을 선보인다. SPC그룹 관계자는 "버번 베이커 버거는 알코올 함량이 0.1% 미만으로 전

연령 판매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제조시 위스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신부·19세 미만 취식 시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매장 홍보물·키오스크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전국 12개 직영점에서 한정 판매하던 하이볼 누적 판매량이 1만2000잔을 돌파하자, 내년부터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한다. 올해 하이볼은 여름 성수기인 6~10월 기간에만 월 평균 약 2000잔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BBQ 관계자는 "2030세대 고객이 하이볼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브랜드는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곳이라,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다수 프랜차이즈가 위스키 업체와 협업 제품을 늘리는 것은 MZ세대의 위스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40대 이상이 고급 바(Bar)에서 즐기는 술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저가 위스키를 사용해 다른 음료와 섞는 믹솔로지(Mixology)가 대세다. 소비층이 확산하자, 위스키 업체들도 기존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iy42@

콜마비엔에이치, 세종3공장 준공... 연 7000억 전기식 생산

한국콜마홀딩스 건강기능식품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주문자 개발생산)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세종3공장을 준공했다. 회사는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4일 한국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 세종3공장의 연면적은 총 2만 4871㎡(7524평) 규모다. 고품제(고체상) 건강기능식품(이하 전기식) 18억 정, 분말 4억 5000만 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3공장 준공으로 콜마비엔에이치는 국내 기준 연간 7000억 원의 전기식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동종업계 최대 생산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세종3공장을 포함한 세종 생산기지에서는 액상과 고형제 전기식을 연 4000억 원 규모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음성에서도 총 3개 제조공장을 바탕으로 연 3000억 원 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세종3공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모든 생산 공정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

치해 개별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한다. 공정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최적화된 공정을 유지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내년 1월 시험생산과 전기식 제품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등을 마친 뒤 바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또 음성과 세종공장이 인증 받은 호주 연방의약품관리국(TGA)의 인증도 획득해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현호 기자 m2h@

대법원장 청문회 앞두고... 법관 “공정·중립성 준수해야”

“많은 국민, 재판 지연 등 우려
품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SNS 사용할때 유의점 ‘가결’
인사·시민단체 고발 등 논의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판사 대표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일로 인해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법관의 SNS 사용시 유의할 점 이상 정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 출석한 구성원 99명 가운데 찬성 53명(53.5%)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부결표 역시 46명(46.5%)이 나오면서 법관 대표들 사이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했다.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

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실시되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조치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후보자에게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과거 최재형 국민 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구(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7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 사퇴를 청문회 개시 조건으로 내걸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박일경 기자 ekpark@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 평가
교육부 “의견수렴 거친 뒤 안내”

교육부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유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사업비 배분은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인 유형1과 단과·계열별로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유형2로 나눠 최소요건을 충족한 대학을 평가해 지원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각 대학 기획처장들에게 묻는 ‘대학 일반재정 지원 성과평가 포괄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

업과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제시된 교육혁신인 ‘학과 간 벽 허물기’ 평가연장선에서 내년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학(거점·국가중심대)의 경우 평가 시 모집 단계 추진실적(양적규모)을 중점 반영하고자 계획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설문에서 정량평가 등 양적 규모를 강조한 ‘사업비 배분 개편안’ 예시를 내놨다. 먼저, 포괄리 사업비는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 지표에 따라 모든 대학에 지원된다.

대학들이 눈여겨본 지점은 ‘인센티브 사업비’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모집 단계 학과 간 벽 허물기 추진실적(양적 규모), 즉 정량평가로 최소요건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소요건’을 ‘유형1’과 ‘유형2’로 제시했다.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

외)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다. 유형2는 계열별(인문·자연)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하는 제도다.

이때 교육부는 유형1·2를 합한 실적이 25~30% 이상이면, 그중 유형1 실적이 10~15% 이상이면 최소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최소요건 충족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진도·전공 선택을 위한 지원체계,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총장·기획처장들 처한 여건과 고민, 입장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다”며 “혁신을 더 하자는 대학에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수렴·간담회를 통해 시안 등으로 조만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현경 기자 son89@



‘눈꽃 동행축제’ 개막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시작된 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에 이은 12월 눈꽃 동행축제로 정부는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에스오토리스 사건은 폰지사기... 보증금 26억 쥐야”

“보증금 내면 태양광 발전에 투자
수익금, 리스료 지원” 고객 속여
보증금 돌려막아... 法 “원고 기망”
금융사 채무 부존재 청구는 기각

수입차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며 차량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에스오토리스에게 법원이 총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납입금액을 지급하라”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2명이 수입차 리스과정에서 에스오토리스에 속아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원고들이 에스오토리스의 중개에 따라

금융사와 통상적인 리스계약 맺은 뒤, 매달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에스오토리스에 차량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별도로 내는 추가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원고들은 각각 700만~66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재판부가 종합한 피해 금액만 26억 원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 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가입자들에게 리스지원금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돌려막기 수법의 폰지사기라고 금융이 동나자 리스 지원을 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전제로 금융사에 내야 할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에스오토리스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리스료 지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계약이 사전에 금융사와 체결한 ‘리스계약’과는 별도의 이중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원고들이 “공통불법행위자”라며 또 다른 피고로 지목한 15개 금융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스오토리스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들이 에스오토리스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욱 기자 pgot@

‘타바’ 앱으로... “외국인, 택시 쉽게 타세요”

본국 전화번호 인증해 카드결제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출시됐다.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렵던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를 보완하고, 주요 관광 명소 정보까지 담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앱 ‘타바(TABA)’가 1일 출시됐다. 작년 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미나(onda)’와 관광새싹기업 ‘글로벌리아’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글로벌리아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광정보 추천 B2B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존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는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국내 발행카드만 결제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접근성이 낮았던 것이다.

타바 앱은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할 수 있다. 해외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관광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거리 및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추천 경로, 최단 경로, 통행료 면제 경로 중 선택도 가능하다. 김서영 기자 0jung2@

Class가다른 상위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LH 혁신안·층간소음·GTX... 현안 끝까지 챙길 것”

원희룡 장관, 마지막 기자간담회
전세사기 피해자 만남 가장 기억
양평고속도 백지화 여전히 유효
집권때보다 국정운영연합 넓혀야
보수통합·중도확장이 기본방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현안과제를 끝까지 챙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을 꼽았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집권 연합보다 국정운영 연합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보수통합 선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실의 개각 발표 직후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차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장관은 인사말에서 “인사는 간격의 문제로 항상 있는 것”이라며 “국정은 1분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장관 임기 종료에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 현재 집중 현안과

제를 보고드렸다”며 “LH 혁신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 노선 연장과 신설 등의 큰 개요를 설명했다. 대부분은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일이며 LH 혁신안은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났을 때라고 회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을

만났을 때가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다”며 “마음 아픈 희생이 있었는데 정책 당국자의 입장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간 대치 상황을 불러온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기본 입장은 정치 공방이 지극히 급속되는 상태에선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 출마지역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보수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당과 상의해 (출마지역 등을) 정할 것이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정부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통합과 중도 확장은 제 정치의 기본 방향 중 하나”라며 “입선에서 움직이면 이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풀무원녹즙, 김미경 대표 선임

풀무원은 계열사인 풀무원녹즙 신입 대표에 김미경 풀무원식품 마케팅본부 김미경(47·사진) DM(Domain Manager)을 이



달 1일자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입 대표는 2008년 풀무원식품에 경력입사해 생채즙주스(아이미리얼) 시장을 개척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냉동 제품 사업을 총괄하며 냉동 가정간편식 시장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식품의 대표 혁신 제품인 ‘얇은피짜잔속 만두(알피만두)’와 ‘노엣피피자’의 성공도 이끌었다.

김지영 기자 kiy42@

토목학회 차기회장에 최동호 교수

대한토목학회는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5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지명위원회-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동호(한양대학



교건설환경공학과·사진) 교수를 제5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신입 회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석사, 매사추세츠공과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강구조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 신입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한진리 기자 truth@

오세훈 시장, 쪽방촌 희망박스 전달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식료품 17종을 담은 ‘희망박스’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오세훈(사진 가운데)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참석해 이영훈(오른쪽)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박종일 CJ제일제당 본부장과 함께 희망박스를 포장했다.

이후 오 시장은 남대문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포장한 ‘사랑의 희망박스’ 800개를 전달했다. 이번 희망박스에는 CJ제일제당이 후원한 참기름, 밀가루, 고추장, 된장 등 식료품 17개가 담겼다.

김서영 기자 ojung2@·사진 공동취재단

강신숙 “조직 내 낡은 관행 철폐... 조직문화 혁신”

수협은행 출범 7주년 기념행사

“조직 내 남아있는 낡은 관행이 있다면 철폐하고 업무 프로세스, 인사, 조직문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Sh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

강신숙(사진) Sh수협은행장이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4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 행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은행본사에서 출범 7주년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수협중앙회가 은행

사업을 시작한지 60년,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를 시작하는 수협은행이 새롭게 출범한지 7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수협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수협은행 단계 △보다 새롭게 △수협은행을 넘어서 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금융 분야 국내 유일의 은행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수협은행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며 “2001년에 공적자금을 받아야 했던 뼈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임직원 모두가 헌신일체로 노력한 결과를 통해 이뤄낸 최대 쾌거”라고 언급했다.

김법근 기자 nova@·사진제공 Sh수협은행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카이스트에 200억 기부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으로

이중근(사진 왼쪽 네 번째) 부영그룹 회장이 카이스트(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으로 약 200억 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4일 카이스트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宇庭) 나눔 연구 동 기금식’에 참석해 200억 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관계자들과 이광형(다섯 번째) 카이스트 총장, 부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가장 노후화된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공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이다. 카이스트는 이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한 모든 기숙사에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따서 ‘우정 나눔 연구



동(가칭)’, ‘우정 공동 아파트(가칭)’, ‘우정 소정사(가칭)’, ‘우정 파정사(가칭)’ 등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부영그룹

‘반도체 장비업계 선구자’ 광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별세

한국반도체 장비업계 선구자로 불리는 광노권 한미반도체 회장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1938년생인 광 회장은 인천전기공고를 졸업하고 인천전기공업을 거쳐 1967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했다. 이후 1980년에 한미반도체의 전신인 한미금형을 설립했다. 광 회장은 당시 불모지였던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일구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 회장이 1998년 개발한 장비 ‘비전플레이스먼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320여 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한미반도체는 인공지능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필수 장비인 ‘듀얼 TC 본더’를 개발해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광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91년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한편 장례는 한미반도체 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동신 한미반도체 대표이사 부회장, 딸 광혜신·광명신·광영미·광영아 씨가 있다. 발인은 6일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부음

‘출판주의자’ 윤형두 범우사 회장

평생 한국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힘쓴 ‘출판주의자’ 윤형두 범우사 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제47대 출협 회장을 지낸 윤 회장이 전날 별세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35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다. 1963년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66년 범우사를 설립했다. 이후 출협 회장을 비롯해 한국출판학회 회장,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평소 “책을 한없이 소유하고 싶

었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는 것이 바라는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며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인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보관문화훈장,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영매 전 이화여대 교수와 자녀 윤재민 범우사 대표이사, 윤재준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윤성혜 윤아트 대표가 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6일 오전 10시다. 장지는 장흥 신세계공원묘원.

송석주 기자 ssp@

▲임창숙 씨 별세, 김영권(호서대대의 협력부처장) 씨 모친상 = 4일,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괴산 호국원, 042-220-9870

이승현 칼럼



주필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있으면 응전도 있게 마련. 기형 창문, 없는 창문의 집들이 나온다.

근육 자량이 능사가 아니다. 비용, 갈등, 저항을 최소화할 세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근래 관심사로 부상한 상속·증여세부터 그렇다. 특히 우리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흑독한 세제라는 큰 결함이 있다. '완전 철폐'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최고 세율 1위는 55%인 일본이지만, 위안거리는 못 된다. 우리 기업 대주주에는 20% 할증이 붙어 60%가 되기 때문이다.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지 모를 일이다.

총체적 결과는 참담하다. 삼성그룹이 좋은 예다.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이견희 선대회장 타계 이후 12조 원을 부과받았다. 세계 1위 상속세액이다.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무서운 세금 이야기'에 따르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3조 원이다. 이조차 조족지혈이다. 두 세대의 차액만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를 건당 100억 원씩 근 1000건 할 수 있다. 초기 투자액을 낮춘다면 1만 건 가까이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1~2%만 성과를 내도 국부가 달라지고 수만, 수십만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런 알토란 같은 종자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런 쟁점에 "왜 부자 걱정을 하느냐"며 코웃음 치는 부류가 있다. 젓 먹던 힘까지 불어넣는 코웃음이다. 상속·증여세 개혁을 가로막는 것도 바로 이런 부류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저리 어두울 수가 없다. OECD 회원국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평균 14.5%다. 호주·캐나다 등 14개국은 아예 상속세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

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 '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가 없다. 상속세 있는 나라만 재분류해 따로 평균을 내도 최고세율은 27.1%다. 왜 이리 낮냐. 다들 부자 걱정을 해서일까.

기업상속세 등으로 낮은 세율 부담을 더 덜어주는 선진국도 수두룩하다. 일본도 기업상속세 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11%로 확 낮아진다. 북구 복지 모델로 거론되는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왜 그랬겠냐. 높은 세율의 부작용으로 국가 경제가 골병이 든다는 경험칙에 따

라 새 길을 찾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상속세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무적이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가 60세 이상 된 곳이 81%다.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 부담이 그토록 치명적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자산가격은 치솟고 인구는 고령화했다. 삼성 일가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기업에서, 소시민 가계에서 상속세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 서강대 임재운 명예교수는 본지 칼럼에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이제는 중산층도 징벌하는 괴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태고 뺄 것이 없다. 민생 보호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급하다. 그런데도 다들 눈만 깜빡인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고 코웃음만 치거나.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의 창문세 촌평을 들려주고 싶다. 그는 창문을 막으면서 씩씩히 말했다. "국가 재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즐거움만 줄어들었다." trala2023@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창문세는 도시 경관을 바꿨다. 시민들은 맑은 공기와 밝은 햇빛을 포기했다. 프랑스에선 세로로 긴 창문을 가진 집들이 생겨났다. 영국에선 창문 없는 집들이 등장했고...

돈과 소비, 투자의 균형으로 경제를 설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Hicks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들이 대개 쪼들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다. 늘 쪼들린다. 영국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국가 세입이 그 국가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세 징수권이 마구 휘두를 힘인지 의문이다. 도전이

고대인의 시간여행 '스톤헨지'

곧 해가 바뀔 이즈음은 새 달력이 나와 사람들이 찾는다. 달력은 1년을 주기로 날짜와 계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을 태양의 운동에 돌지 않으면 달의 모양 변화로 할지에 따라 태양력 혹은 태음력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달력의 대부분은 지구의 공전 주기인 365.24일을 12개월로 나눈 태양력에 기초하고 있다. 태양력 달력을 최초로 사용한 국가나 문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태양력 달력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유적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영학자 "1년 365일 12개월 달력" 주장

작년 4월 국제학술지 '엔티퀴티(Antiquity)'에 게재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선사시대의 유적 '스톤헨지(Stonehenge)' 역시 태양력 달력과 연관이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영국 본머스 대학의 티모시 다빌 교수 주장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1년을 365.25일로 하는 태양년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다.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우뚝 서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 스톤헨지는 환상열석(環狀列石) 구조물이다. 즉, 거대한 선돌이 원형으로 배열된 유적으로, 크게 두 개의 고리(stone circle)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총 30개의 거대 사암이 지름 30m의 원형을 이루며 서 있는 고리가 있고, 그 안에 6~7m 높이의 돌기둥 두 개 위에 가로 바위 하나가 얹힌 삼석탑 5쌍이 U자형으로 배치돼 있다.

다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바깥 원을 구성하는 돌 한 개는 1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깥 원을 이루는 서른 개의 돌은 30일 즉, 한 달에 해당한다. 이를 12배로 늘린 360과 안쪽에 배치된 삼석탑의 개수 5를 더하면 1년 일수인 365일이 된다. 또한 외부 고리 바깥 사방에 '포 스테이션' (4개의 축점석)이 있는데, 이는 4년 중 하루를 더해야 하는 윤일에 대응하는 걸로 보았다.

위의 태양력 학설에 대한 반론과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나의 예로 360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곱해 준 '12'라는 숫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스톤헨지 건축 당시 윤년을 더한 양력을 고

과학세상

이난영 과학칼럼니스트



안했다는 설도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 지적도 있다. 실제로 양력의 어긋남을 수정하기 위해 윤일을 추가한다는 발상은 스톤헨지 건설 약 2000년 후에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스톤헨지가 기원전 2000년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다빌 교수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선에 시작과 끝을 표기하려는 노력은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전에 시작된 걸 수 있다.

달력을 만들 때 음력보다 양력이 더 널리 쓰이게 된 건 날짜 못지않게 계절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계절에 대한 정보는 달에 붙여진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고대 로마 달력에선 3월을 마르티우스(Martius)라 칭했는데, 이는 전쟁의 신인 마르스(Mars)에서 유래한 거라 한다. 말하자면 3월은 겨울과 싸워 봄이 오는 달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온난화로 계절과 맞지 않는 날 많아져

요즘은 날씨가 요일 외에 그 달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도 함께 실리기 때문에 계절 혹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게 어렵지 않다. '11월의 청계천'이란 풍경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가을 끝에서 있음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가 기존에 알려진 계절과 맞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위력을 보여주는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왔는데, 2024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흔적'과 '케이-버스'(K-Bus)가 각각 4월과 11월 사진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태풍 '힌남노'가 활귀고 간 모습과 집중 호우 현장을 담은 두 사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식이다.

의대정원 확대, '과학'으로 말해야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제쯤 나올까.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증원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히 2025학년도 전체 증원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라고만 발표해 서다.

의사 수 확대에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증원 규모도 정하지 않고, 각 의대에 결정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 증원이 필요하면,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대와 조율하는 게 우선이다.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건 의료계 주장처럼 과학적인 의사 인력양성 정책이 아니다.

의사 증원이 자연스레 필수·지역의료 인력으로 충원되는 '낙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정원 확대 후 지역에 남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노트북 너머

노상우 헬스케어 기자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없이 인원만 늘리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가 어느 지역에 부족하지,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지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계 반발도 일면 일리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만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한 현실에서 정부는 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필수·지역의료 대책과 숫자를 내놔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마련에 정부가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nswreal@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렉산드르 뒤마 명언

"사업? 그건 아주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다." 소설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외에 250편을 쓴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대(大)뒤마'라고도 한다. 파리에 가서 오를레앙 공(公)의 필경직(筆耕職)을 지내면서 몇 편의 작품을 쓰는 동안, 사극 '앙리 3세와 그 궁정'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망파극(派劇)의 선구자가 됐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02-1870.

☆ 고사성어 / 추주어륙(推舟於陸)

'육지에서 배를 민다'라는 말. 고집으로 일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장주(莊周)의 저작 '장자(莊子)' 천운(天運) 편에 나온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장자는 공자(孔子)의

행동을 반박한다. 공자 제자 안연(顔淵)이 위(衛)나라로 유세를 떠난 스승의 앞날에 관해 묻자 노(魯)나라 음악장인 태사(太師) 사금(師金)이 육을 보실 거라며 대답한다. "옛날 주나라와 노나라의 차이는 배와 수레의 차이인데, 옛날의 도를 노나라에서 행하려고 하면 마치 배를 육지에서 미는 것과 같아[是猶推舟於陸也], 애를 쓰나 공이 없고 그 몸에는 반드시 재앙이 올 것입니다."

☆ 시사상식 / 일학개미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 일본 엔화가 빠르게 하락하고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2022년 8월 20일 현재 일본 펀드는 탄탄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도 증시 하방선을 지지하고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배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했다. 당시 주변 흡연인들의 원성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담배는 필수품인데 국가가 전매권을 담보로 '뺑'을 뜯는 거나 다름없으니 이해가 가기도 했다.

"차라리 담배를 못 팔게 해라." 흡연자들은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하라는 불만까지 터트렸다. 건강을 해친다면서 제품을 제조해 팔고 가격을 올려가면서 왜 금연정책을 하나하는 거다. 가격을 올려서 흡연자를 줄일 요량이면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는 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여전히 피울 것이라는 걸.

금융권에 또다시 불완전판매가 이슈다.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급락에 은행들이 판 추가연계증권(ELS)의 구조 손실이 예상되면서

다. 1일 기준 H지수 분점 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LS 가입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라 알려졌다. 제2의 라임, 디스커버리 사태 등과 비교될 만하다. 그 당시와 다르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핵심은 여기서 출발한다. 은행이 파생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은행 영업의 최말단 직원은 항상 실적 압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혼자 알아보고 투자하는 세대가 아니라, 창구를 직접 찾는 고령자층이 소위 '영업 타겟'이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갈수록 진화한다. 파생상품은 특히 어렵다. 판매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령자나 금융에 무지한 고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솔직히

데스크 서각

이초희
금융부장



은행 직원이 상품의 구조와 향후 벌어질 변수 등을 자세히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아직 구조 손실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불완전판매에 있었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물론 한번 '교훈'을 얻은 은행들은 '금소법' 아래 녹취와 수십번의 '사인'을 통해 본인에게 제대로 상품을 인지시킨 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팔면 불완전판매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담배가 그리 해롭다면 왜 팔까라는 의문을 확장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 판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은행의 파생상품을 여전히 허용하는 걸까로 이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판매의 투명성은 첫 번째 원칙이

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품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복기해보자. 투자 은행들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여러 회사채 등을 마구 버무려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를 잘게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주택 가격이 단기에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현실이 되면서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판매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이 복잡한 상품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미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했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를 놓고 '자기면피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장 감시에는 소홀하다가 사고가 터지니 또 은행 비판만 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가 원칙인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 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cho77love@

은행이 판 ELS '손실우려' 불거져

불완전판매 논란에 은행권 '곤혹'

금융당국 '시장감시' 책임 느껴야

마음상담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어떤 지인께서 전화를 주셨다. 주말에 서울에 올 테니, 잠시만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듯한데, 전화로 내놓고 여쭙어 보긴 어렵겠다 싶어 일단은 수락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끔 생긴다. 나는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가족치료를 전공했고, 부족하지만 임상 경험을 꽤 쌓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내밀한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문득 나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겠다고 청한다.

한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사실 전화 드렸을 때 고민하던 문제가 이미 풀렸어요. 오늘은 그냥 얼굴 보려고 왔어요."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더니 다행이지만, 어떤 일인지 궁금했는데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용기내 여쭙어 봤다. 배우자와 갈등한 문제였던단다.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고 푸셨단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

각해 봤다. '왜, 어째서 좋아지셨을까?'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깊게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본인이 떠올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그런데 상담까지 청했으니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반성도 하셨는지?

'상담 전 변화'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로 최종 결심하고 상담자에게 연락해서 약속까지 잡았는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상담을 받기 전에 상황이 개선되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감지해서 그 위기가 실제적 위협으로 작동하기 전에 미리 잠재우는 힘.

어쩌면, 문제는 현실 속 모순을 인식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서 생기는 듯하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실제로 인식하면, 그래서 진지하게 긴장하고 대처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재원 강점관점심리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내년 투자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매출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131개)의 55.0%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38.0%)보다 11.7%포인트(p) 증가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시설투자 산·중·중 관련 규제(28.8%)라고 했다. 투자환경을 개선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와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이 제시됐다.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4%로 8월보다 0.01%p 상승했다. 빚을 갚기조차 버거운 대기업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기업 현장의 살얼음판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건비 부담도 계속 늘고 있다. 매출 500대 기업 중 366개 상장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2019년보다 19.2% 상승했다는 민간 기업분석연구소의 조사결과도 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대다수 대기업 실적이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원가는 상승하고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려 이상한 일이다.

미래가 걸린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10대 제조업 기업의 설비투자가 연초 제시한 목표(약 100조 원) 대비 약 66% 이행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길러 규제 개선, 특화 단지 국가 산단 지정 등 투자 유인책을 폈다. 하지만 헛구호에 그쳤을 공산이 크다.

당국은 말만 앞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로를 열어줘야 할 책무도 무겁다. 미래 투자에 속도가 붙으려면 법적 접근이 시급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시장복지의 중추다. 국내 대기업 절반이 투자 계획을 망설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다. 저성장 경기가 안팎에서 날로 커지고 있다. 귀족노조 편들기에 바쁜 나머지 기업 발목이나 잡는 국회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노조도 없다.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대기업에 도와야 한다.

'기축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러자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 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업은 외부의 도전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건설업계 부실 심해-방치하면 줄도산

부실 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차입하여 경영함으로써 불경기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기계와 소상 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가 나가기까지 긴 시간차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금융지원을 조치함으로써 부도를 늦추도록 한 측면이 있다.

특히 부실한 부문은 건설업계다. 기존에 건설했던 중견건설회사도 부동산경기 하락과 고금리로 잇달아 파산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던 건설 기업은 929곳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3년째 1 미만이던 한계기업은 387곳으로 19%를 기록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기업의 재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평가받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파산할 기업, 즉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내경제

는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많은 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주문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부족에 따른 주문부족이 문제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그렇다. 내수 부족에는 팽창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부실 위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한계기업과 성장기업을 구별해 경쟁력과 성장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거나 유동성을 지원하고, 가망이 없는 부실한 기업은 조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실기업을 파산시킴으로써 나머지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흑자도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선제적 구조조정 통해 기업정상화 유도를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축법)이 일몰 없이 상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축법은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매년 일몰과 연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안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기축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의 성공사례는 위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마당에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채권단(25%)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험 소지를 근거로 기축법의 일몰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말과 같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 다시 찾아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전국이 ”
비스포크 큐브 에어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65일 쾌적한 실내를 위한 비스포크 큐브 에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매우 나쁨

일시 나쁨

나쁨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상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기사는 실제 정보와 무관함



AI로 실내 공기질까지 학습해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BESPOKE 큐브™ Air

* 맞춤형 청정사+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가지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 실내 공기 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 표준 협회 주관 사+ 인증 취득 - BESPOKE 사+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 (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3:2016) * BESPOKE 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청정사로 셋팅 필요 -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가전을 나답게.